



서울대 同窓會 報

2001년 10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국민 생활체육 관련 동문 간담회. (좌로부터 崔大燮·金道賢·金榮助·金慶洛·權赫憐·金光照·李龍植동문) <커버스토리 6~7면>

서울대인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



관악춘추
근래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큰 변화 중 하나는 국민들 사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여가선용의 수요가 증대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정부와 민간단체들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하고,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돌이켜보면, 정구를 하던 미국 공사에게 『아랫것들이나 시키시지』했다는 20세기 초 어느 대감의 시대로부터, 스코틀랜드 목동들의 돌치기(우리 나라의 자치기에 해당한다)가 발전된 골프에 고소득층이 열중하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화되어 왔다. 근대화된 학교체육에서 비롯하여, 왜정시대의 반강제적인 라디오 체조와 해방 후 오랜 동안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의 국민체조 보급운동을 상기해보자.

그와 같은 공권력 중심의 생활체육 시대를 지나, 오늘날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자생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샘터와 공원에 모이는 사람들의 운동열기나 조기 축구회 등을 비롯하여, 버스를 타면 한 시간이 안 되어 오를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도시 주변의 일요 등산 열기, 저녁이면 한강이나 여러 하천 둔치에서의 저녁 산보나

생활체육의 시대

달리기 등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엘리트 중심의 관람용 스포츠가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수준에서 크게 발달해 온 데 비하여, 어릴 때부터의 인성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생활체육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지난 8월에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 그 내용은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생활체육 지도자 및 동호인 활동의 강화,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2002년에는 1천억 원을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2006년에는 2천5백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시도협의회 16곳, 전국 36종목별 연합회, 시·군·구 협의회 2백30여 곳을 거느리는 큰 단체로서, 21세기 생활체육의 장기발전 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 밖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도 생활체육 관련 분야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운에 부응하여 서울대총동창회는 생활체육 관련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몇 분을 초청하여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동문들이 이런 분야에서 팔목할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크게 감지를 느끼며, 그들의 경륜을 귀담아 들어보기로 하자. 그리하여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루 속히 우리 나라가 좀 더 밝은 건강사회로 바뀌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熙>

만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사람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느리나무광장

요즘 들어 28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바치셨던 고인은 생전에 기회만 있으면 10남매 자식들에게 「中庸之德」을 마치 가훈처럼 강조하셨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불경스럽게도 그저 종교교육자의 고리타분한 補身主義의 思考쯤으로 치부해 버렸다.

中庸은 영어로 「moderation」 또는 「the happy golden mean」이라고 한다. 직역하면 「행복한 가장 좋은 中間」이 되고, 의역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中道」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길이야말로 곳곳에서 판치는 극단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세대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몸에 좋다면 인삼, 녹용, 뱀, 보신탄 등을 탐식하고, 날씬한 몸매에 좋다면 무슨 약이라도 서슴없이 과용하고, 인터넷 게임에 빠졌다하면 밤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고, 국회가 열렸다하면 허구한 날 여야간에 생사를 건 싸움판이 벌어지고, 의사마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채 집단 구호를 외치고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얼마 전 8·15 평양 방북단이 귀환한 김포공항에서 낯뜨거운 팔불견이 벌어졌다. 이들을 성토했는 쪽과 환영하는 쪽이 『김정일의 하수인은 북으로 돌아가라』와 『反統一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끝내 몸싸움을 벌이고 말았다. 남북으로 분단된 단일 민족이 지역감정으로 동서로 나뉘더니,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를 앞세운

양극단으로 갈라서는 현상이다. 구심력과 원심력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만물의 이치일진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마치 구심력은 사라지고 제각기 극단으로 뛰쳐나가려는 원심력만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는데 필요불가결의 명약이 바로 중용론인 듯 싶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 우리 정치권에서 한 야당 지도자가 들고 나온 「中道統合論」이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속칭 「사꾸라 정치」의 대명사로 물리면서, 중용론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마저 부정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어느새 중용론의 주창자는 기회주의자나 회색분자 등으로 평가절하되면서 극으로 치닫는 강경론자들이 항상 애국자로, 민주투사로 대우받고 있다.

이런 고질적 정치풍토 때문에 적당하면 아름다운 향토정신으로, 건전하면 화합의 촉매제로, 민주적이면 권익증진책이 될 수 있는 지역감정과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단체행동들이 도를 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망국병으로 매도되고 있다.

우리 앞에도 21세기 최첨단 정보화사회가 열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過하지 않게」 「적절하게」 「유연하게」와 같은 「중용론의 목소리」가 힘차게 터져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가에서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중용론이 여론형성의 주류를 이루면서 국가안정의 구심력 역할을 할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金仁圭
KBS뉴미디어본부장

동문칼럼

전문가가 되라고 권할 수 있는 사회

지난 7월 어느 날,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준비절차에 참석했던 필자는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을 다시 직접 소환하라』는 말을 듣고 황당해졌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으나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정도의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리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최근 들어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려는 것일까.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가 변리사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소송절차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리사법의 규정을 믿고 소송을 의뢰하고 이를 수임한 사람은 어찌 해야 하는가.

산업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제도이고, 그 깊이는 단순히 법령을 읽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국내 특허와 외국 특허의 관계, 우선권제도, 특허등록요건, 침해요건, 특허권리범위의 해석 등 일반 상식과 다른 특허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권리자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자칫 대리인이 잘못 이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 사건이 국제간의 분쟁일 경우에는 국익의 손실로 이어진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변호사의 절대 다수가 공학, 자연과학, 기술과 거리가 먼 법학을 전공했고, 변호사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상당한 연구를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이해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몇이나 될까.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변리사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게는 기업의 흥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의뢰인은 변리사와 변호사 양쪽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뢰인은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누굴 위한 제도 운영인가.

세상이 급변하면서 다양한 전문분야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왜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는지, 왜 전문가가 되라고 권할 수 없는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는 전문가가 설 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적박한 환경이다.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유능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사가 되라고 할 것인가. 변리사나 기술사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되라고 해야 한다. 왜? 변리사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기술사 부분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을 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기술사의 업무는 당연히 일반 법률관계 사무일진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기술용역업무를 다루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다른 모든 전문가가 전문활동을 하는 것이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도 부정된다면 어찌 특정분야의 전문가의 길로 가라고 권할 수 있으랴. 변리사, 기술사를 예로 들었지만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가 법률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약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전세계를 품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새싹을 트고 기지개를 켜려는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테두리에 가두어 새싹을 잘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새싹들이 활개를 치며 자기 영역을 구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런 새싹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때 국가경쟁력은 높아지고, 그래야 법률 전문가도 세계를 상대로 활개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 있게 전문가가 되라고 권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 수는 없는가.



高永會
(81년 工大卒)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기술사

주요목차

건강을 지킵시다3면
尹秀重 신경정신과의원장
추억의 창3면
金元主 경북대 명예교수
지부 순례5면
싱가포르 지부
기과 순례5면
상대 57 동기회

동문을 찾아서8면
李御寧 중앙일보 고문
화제의 동문9면
鄭喜斗 주간「청년의사」만화가
동문 기업 탐방10면
한미파슨스(주)
서울대 가족11면
權景坤 현암약국 대표약사

모교 소식14~16면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SNUA OPINION LEADER.....18면
李長憲 모교 수의학과 교수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20면
申慧媛(崔敬鎭동문 부인)
박성희 문화산책20면
사주&궁합&풍수 인테리어

건강을 지킵시다

긴장성 두통은 성격변화로 해결

두통은 아주 흔하게 겪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원인별 분류로는 그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위 「긴장성 두통(tension headache)」에 대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증상의 특징이 땀하고, 짓눌리는 것 같거나, 머리가 무겁고 꺾일 못하며, 두피 쪽으로 감각이 둔하거나 어떤 경우는 스물스물한 느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는 머리의 양쪽 측면, 후두부 등 근육과 연결된 부분이 많으나 두정부도 잦으며, 흔히 자가진단으로 얘기하는 「편두통」(이 경우 한쪽이 아프다는 일반 용어)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지속적(증세의 정도차이는 있으나)이고, 심리적인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꼭 뒤가 뻣근하고 땅기거나 심하면 어깨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원인으로는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내·외부에서 한 개체에 주어지는 자극이라 정의할 때, 이것을 다루는 구조(넓은 의미에서의 성격에 따라 증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내부에 남게되는 부분)를 긴장도(tension level)라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와 긴장도는 같은 뜻이 아니며, 둘 사이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젊어지게 되는 긴장도가 그 개체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입니다. 그 정도가 주어진 개체의 역치(threshold value)를 넘게되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예로는 두통을 위시하여 수면문제, 소화장애, 과민성



尹秀重(79년 醫大卒)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대장증세 등 과장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다양한 신경성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인을 생각해볼 때 결국 개체(나)와 환경(현실)과의 불협화음이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여지며, 환경의 변화란 쉽게 적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 자신(위에서 말한 성격)의 변화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격이란 지니고 태어난 기질(temperament), 성장과정, 현 상황, 심지어 그 사람의 가치관,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포괄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각도에서 볼 때 「성격개조」까지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약한 면을 좀 보강한다든지, 너무 지나친 면을 좀 완화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면만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사족을 붙여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산(ventilation)」과 「이완(relaxation)」이라는 두 단어를 자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몸과 마음의 여유(虛)를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연락처 : 031-212-5315)

추억의窓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산다」 격언 되새겨
동기들 법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약속

金元主(57년 法大卒)경북대 법학부 명예교수

1953년 4월에 부산에서 입학식을 가졌었다. 그 해 9월에는 정부의 서울환도와 더불어 동송동의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가질 때까지 공부했다.

입학식 때 崔奎南총장님은 당신께서 대학 입학할 때 가졌던 감격과 푸른 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시면서 우리 신입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길 당부하셨다.

金會漢학생과장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산다(FIAT JUSTITIA RUAT CAELUM)」는 라틴어 격언을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셨다. 법대 교문에 아치형의 구조물에 이 글이 게양됐다. 이 이념, 이 정신의 또 다른 형태를 현재의 관악캠퍼스에 있는 「자유의 종」에서 발견하게 되어 늘 감회가 새롭다.

1학년 1학기 개설과목이었던 민법총칙 시간에 高炳國교수님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라틴어 격언을 소개해주시면서 그것이 법의 기초임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리고 독일 단체법의 석학이었던 길케(Otto Gierke)의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셨다. 高炳國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입학식 때 각 단과대학의 학장님을 소개하는 시간에 崔총장님이 「키가 큰 나로서도 결코 내려다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高炳國학장님을 소개하셨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자기 자신과 「약속」하면서 우리 동기동창생들은 각계각층으로 진출, 발전해 갔다.

崔在護 前대법원장 직무대리 등 다섯 분의 대법관, 한나라당 李會昌총재 등 두 분의 국무총리, 서울대총동창회 鄭宗澤부회장(前노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다섯 분의 장관, 咸正鎬변호사 등 두 분의 대한변호사회 회장,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들 수 있다.

학계에도 많이 진출해 모교 법대 權寧星명예교수를 비롯한 15명의 동기동창들이 鶴志會라는 모임(회장 吳淇坪·세종재단 이사장)을 만들어 두 달마다 한번씩 모임을 갖고, 대학재학시절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모교 법대 11동기회(회장 李大淳·前경원대총장)는 매년 12월 11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있고, 매월 동기동창 중에서 한 분의 초청연사를 초빙하여 대학시절의 그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오찬을 통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기 2003년의 입학 50주년을 기념하는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유명을 달리한 동기동창을 생각할 때 「세월」의 무상함과 그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게 느껴진다.

「세월이 결코 사람을 위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선현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서울대학교여! 서울법대여! 그 약속과 더불어 영원하라!』고 외치고 싶다.



3학년 때, 남한산성 야유회서 동기들과 함께.

제6회 「동문 교향악단」 연주 대성황

金회장 “편안한 정과 삶의 기쁨을 느낀 무대”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9월 10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동문 가족과 재학생 및 일반 관객 1천여 명이 객석을 매운 가운데 「제6회 서울대학교 동문 교향악단(SNU PHIL) 연주회」를 뜨거운 성원 속에 개최했다.

모교 음대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동문 교향악단은 현재 국내외의 내로라 하는 연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우수한 신진, 중견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격년에 한번씩 이러한 대대적인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스승과 제자, 선후배 및 동

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더욱더 성숙된 예술적 활동을 통해 국내의 교향악단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로 1백40여 명의 동문이 공연한 이날 연주회에서 지휘에 서울시 교향악단 단장 겸 지휘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鄭致溶(83년 音大卒)동문, 제5회 연주회에 이어 2회 연속 악장을 맡은 모교 음대 학장인 金 昶(64년 音大卒)동문을 비롯해 모교 교수,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서울시 교향악단, 부천시 교향악단 멤버들이 자리를 빛냈다.

동문 교향악단은 이날 공연에

서 인간적인 낭만과 슬라브 정신의 세계화를 지켜나간 러시아 출신 차이코프스키의 주옥같은 곡들을 선배 관객들의 내면에 숨겨진 음악적 요소들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날 연주곡목으로는 「슬라브 행진곡 작품 31」,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등을 선보였으며, 한편 2001년 모교 음대를 졸업한 崔宰媛(본회 崔主鎬 명예회장 손녀)동문이 이날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협연,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등을 연주해 참석한 관객들에게 열띤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연주회를 마친 후 본회 李世

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에서 金在淳회장은 『오늘처럼 이렇게 총명한 가을밤에 음대 동문들이 주관한 가을잔치에 많은 동문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며 『우리의 심사가 밝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이 시기에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은 편안한 정과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동문 교향악단이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金正吉음대동창회장은 『단원들 모두 그 동안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성공적으로 이날 연주회를 마치게 된 것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 드리며,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많은 동문들이 역시 서울대인의 긍지도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주회와 리셉션에는 본회 林光洙·李達雨·朴晟容·洪性大·卞柱仙부회장, 본보 朴世熙·朴聖姬·安炳燦논설위원, 金閔鍾마성상사 대표, 모교 李基俊총장, 金基奭학생처장, 金基善학생부처장 등이 부부 동반 및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金在淳회장은 金正吉음대동창회장, 연주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韓相宇음대동창회 수석부회장, 鄭致溶지휘자 및 협연을 한 崔宰媛동문 등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表)

10월 21일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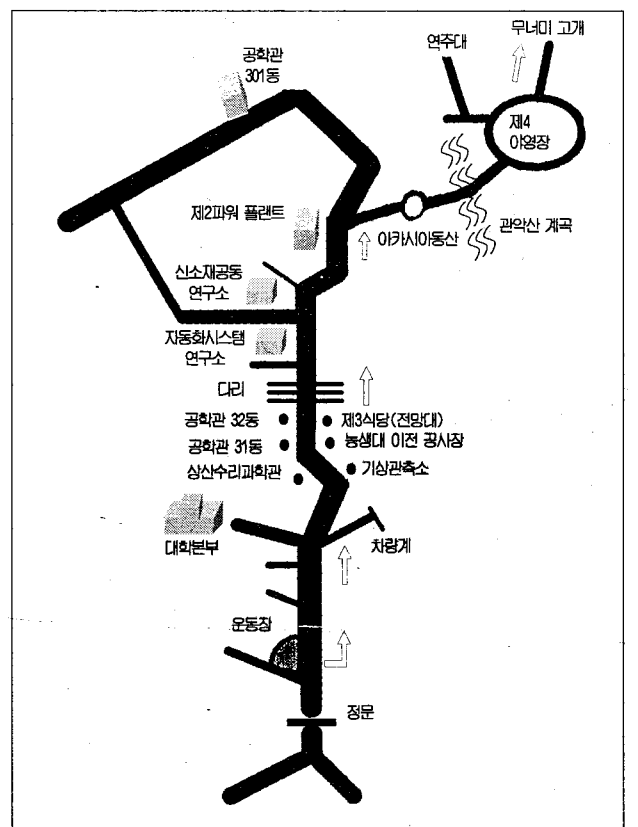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3회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1일 거행됩니다.

산행 코스는 작년과 같이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 집결, 등로를 하시고 조별로 교정을 따라 올라가며 기상관측소, 공학관 31·32동, 농·수의대 기초과정연구동, 제어계측신기술연구소 등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신소재공동연구소 앞쪽에 마련된 문을 통해 관악산으로 접어들어서 제4야영장을 거쳐, 무너미 고개를 넘어 농생대 수목원으로 향하는 코스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산행거리는 약 6km 이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되리라 예상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 모교를 방문하여 그 동안 잊고 지내던 옛 동문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가족에게 창작곡악의 거봉 黃秉翼(59년 法大卒)동문의 가야금 연주곡이 담긴 기념CD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 시: 2001년 10월 21일(日)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천

문의전화: (02) 702-2233



金회장, 金正吉음대동창회장



金회장, 鄭致溶동문



金회장, 韓相宇음대부회장



崔宰媛동문, 金회장



싱가포르 지부

60여 동문 단합, 우수 해외지부 표창 받기도

글 : 金興相(87년 人文大卒)총무

적도에서 불과 몇 km 떨어지지 않은 곳,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도시에 가까운 이곳 싱가포르의 일년 내내 더운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는 그 지리적 위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 인근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고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과 기업들이 모여 활동하는 국제도시이다. 이곳의 현재 총인구는 약 3백50만 명으로 외국인 인은 단기 체류자 등을 합해 약 1백만 명 정도인데, 여기에 한인은 교민, 상사원, 주재원 등을 모두 합해 약 3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 지부 동문은 현재까지 주소가 파악된 동문만 약 60여 명에 이른다.

싱가포르 지부는 외환위기 이전에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정기총회, 송년회, 골프대회 등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당시 골프대회의 순회배는, 첫 순회의 명단에 우승자들의 이름이 꼭 차 현재는 최고급 도자기로 된 두 번째 순회배를 趙英善(67년 工大卒)동문이 구입·기증하여 시상하고 있다. 또한 1997년 3월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때에는 우수 해외지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곳 싱가포르의 나라 특성상 이곳에서 터를 잡고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특히 동문들)보다는 일시 체류, 부임근무 등

의 인원이 대부분이어서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많은 동문들의 노력과 뜻에도 불구하고 모임자체가 여의치 않았고, 그러는 사이 동문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관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부가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1999년 말로, 그 전까지 부회장을 맡고 있던 李仁榮(72년 工大卒)동문이 동문들 중 각 기관의 장급인 선배 기수들을 중심으로 재규합에 나서 그해에 송년회 겸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를 모두 개최했다. 당시 총회에서 李仁榮동문이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선배동문들을 중심으로 고문들도 추대되어 현재는 다시 활발한 친목활동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 동문들은 우선 각 기업과 금융기관, 외국계회사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모교의 학문수준을 대변해 주듯 대학교(국립싱가포르대학과 NTU)와 연구소에 교수 및 연구인력으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도에는 New Millennium을 맞이하여 이곳 싱가포르 지부에 경사가 있었는데 바로 모교에서 李基俊총장, 閔相基대학원장, 禹鍾天前대학원장이 국립싱가포르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의차 싱가포르를 방문하신 일이다. 이 기회에 총장님

일행께서는 지부 동문들과 간담회를 겸한 만찬을 함께 하셨는데, 학교의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해외지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동문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 토론하는 등 아주 뜻깊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모임에는 당시 싱가포르 주재 대사 鄭基鉉(64년 法大卒)동문을 비롯해 그 동안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었던 동문들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지부 동문들을 위해 모교에서 준비해온 기념품들(모교 상징물)은 오랜 동안 모교를 그려온 동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했다.

이렇듯 싱가포르 지부 동문들은 비록 몸은 고국과 모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교와 동창회 본부의 지원 및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원활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전개하며, 각자 분야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서울대인의 긍지를 더욱 높여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李仁榮 회장



2000년 2월 모교 李基俊총장 환영 만찬회.



상대57동기회

취미별 모임·긴밀한 연락망이 가장 큰 자랑

글 : 鄭亨鎭(63년 商大卒)총무



禹完植 회장

5월에 발족했다.

초대 李相得(61년卒·국회의원)회장을 비롯해 李洙彬(61년卒·삼성생명 회장), 朴聖麒(61년卒)동문을 거쳐 현재 禹完植(61년卒·한화그룹 대표)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정년 퇴임한 모교 경제학과 安秉直교수, 대상그룹 高斗模상임고문, 한국은행 全哲煥총재, 서울산업대 李鎭高총장, 駐이태리 金錫鉉대사 등 정·재계,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대57동기회 동문들은 이처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간의 유대 의식도 강해 각종 소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교를 위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상대57동기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사업 및 행사로는 매년 5월 7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는 정

기총회, 4분기별 세 번째 수요일 한남클럽에서 15명의 회장단이 모이는 운영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의 주요 행사로는 1991년 9월 28일 모교 강당에서 2백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 은사에게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모교 관악캠퍼스에 기념 식수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 2월 20일 모교 교수 학술연구비 지원기금 모금사업에 5백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7일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백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현재 1백65명의 회원간에 데이콤 매직 팩스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타 동문들에게는 용역을 주어 전화연락을 하는 등 동문간의 상호 긴밀한 연락망을 형성해 동문 개인동정, 경조사 등을 일괄적으로 연락하며 모든 동문들이 긴밀한 유대감과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상대57동기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각 소모임 활동이 발달되어 있어 취미별로 동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적지 답사 동호회는 연 3회에 걸쳐 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최근 안동 하회마을, 영주 부석사, 구례 화엄사에 둘러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서상회(골프 동호회)는 회원 수 16명으로, 1974년 9월 1일 창립대 현재 高斗模(63년卒)회장을 비롯, 1백14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상회는 매월 첫째 일요일 양지파인CC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 제200회 기념 경기를 치렀다.

또한 상조회(납시동호회)는 1976년 6월 서경저수지에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행사를 가졌으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민물, 바다, 강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1년도부터는 비수기인 11월에서 3월 사이 인근에 있는 명산들을 등산하고 있으며, 현재 李東岱(61년 商大卒)회장을 비롯해 회원 수가 1백26명으로, 모임 중에서는 가장 크고 활발한 동호회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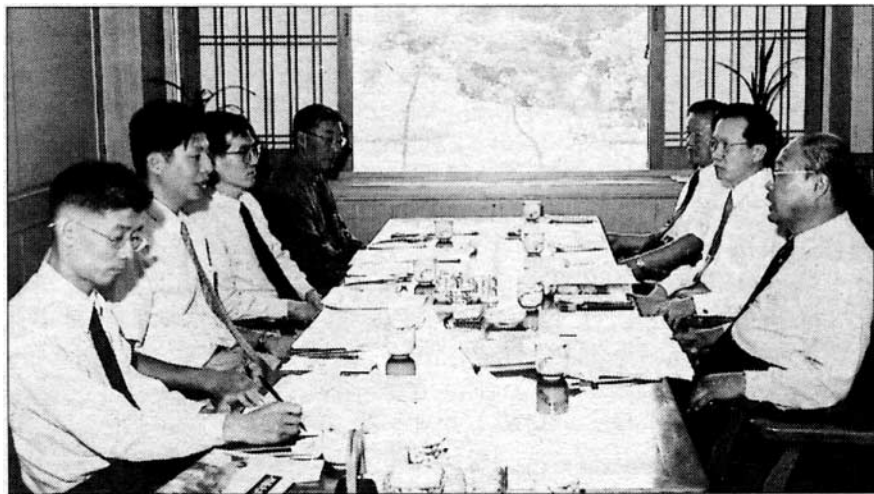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우회(비독동호회)는 1986년 3월 압구정동에 있는 한국기원에서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됐다. 현재 姜錫權(63년卒)회장을 비롯, 55명의 회원들이 프로 8단인 姜哲民(57년 商大卒)동문의 지도로 실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2001년 5월 7일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겸 정기총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운동종목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생활체육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국내 생활체육 현실이 이런 욕구들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 건강을 지켜주는 올바른 생활체육 방법과 우리 나라의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회=崔大燮(85년 師大卒)서강대 교양과정부 교수

참 석 자

- 金慶洛(64년 工大卒)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회장
- 金道賢(76년 自然大卒)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이사
- 權赫潤(77년 保大院卒)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회장
- 金榮助(83년 環大院卒)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유성사업소장
- 金光熙(84년 自然大卒)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키시연협회 이사
- 李龍植(88년 師大卒)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사 회: 이 자리는 동문들에게 생활체육에 관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金慶洛: 건축학을 전공한 저는 동네 테니스클럽 회장으로 있던 중 서울시 테니스연합회장을 맡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국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경험으로 생활체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테니스 관련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시 테니스연합회장 재직시 25개 구의 테니스연합회를 규합하여 테니스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안성에서 뉴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道賢: 해양학과 72학번이며, 사람들이 보통 생활체육이라 하면 육상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서 스킨스쿠버를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이사도 맡게 되었고, 직업도 바다와 연관이 있는 한국해양기술 대표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교에 입학했을 당시 스킨스쿠버 장비와 이를 옮길 수 있는 차량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군에서 제대하고 보니 상당히 발전돼 있더군요.

權赫潤: 저는 원래 체육학이 아닌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전공보다 오히려 체육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국민의 삶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학이나 생활체육 모두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이오벤처회사인 시로텍코리아도 경

영하면서 건국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볼링은 대학시절부터 시작해서 한국프로볼링협회가 생겼을 때 부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생활체육 볼링협회가 생기면서 2대째 회장으로 있습니다.

金榮助: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83년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86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때 저는 육상파트였고 특히 장애자 올림픽 경기를 지원할 때 경기 팀장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체된 후 89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족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세종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스쿼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미국 유학시절 때였습니다. 처음엔 라켓볼과 스쿼시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하지 말라고 충고해주셨습니다. 라켓볼과 스쿼시의 성격이 너무 달라 서로 같이 하는 것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쿼시를 배웠습니다. 92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의외로 스쿼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군요. 93년에 제1회 전국동호인스쿼시대회가 KBS 88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98년에 실질적인 전국스키시연협회가 생겨 연합회 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李龍植: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97년에 체육과학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주로 체육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체육진흥 3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위선양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체육 관련단체와 협의 하에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맞춰 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대시키는 일과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생활체육의 중심이 성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과는 연계되지 않았습니.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도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 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동문께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며 동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비결을 소개 해주시죠.

金慶洛: 테니스연합회장을 맡고 있지만 테니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문들과 등산을 하고 아침에는 조깅도 합니다. 생활체육은 목적 없이 즐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여건에 맞게 건강목표를 정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땀을 같이 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흥미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운동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사 회: 좋은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우선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외에 조깅까지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金慶洛: 조깅은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제가 테니스 조깅회를 77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동네마다 테니스코트가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종토세 문제로

코트가 점점 없어지면서 조깅회를 일요일에 한번 열곤 하죠.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조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 회: 예전에는 체육시설이 많았는데, 종토세 문제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체육시설이 점차 없어졌습니다. 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기관에 건의하여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생활체육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李龍植: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땅값이 높아져 체육시설이 도시 중심에 자리잡지 못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천적 방법으로 정부나 구에서 시내 교통의 요지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위치에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金慶洛: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이니 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위해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라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체육시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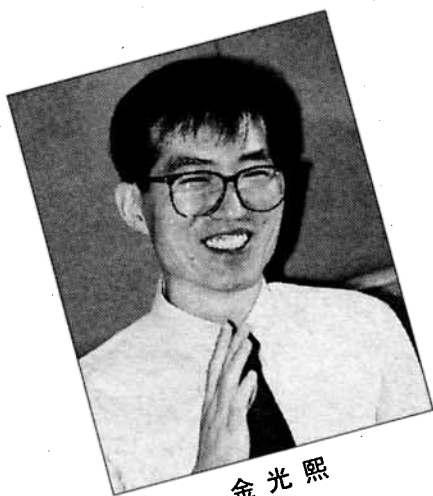
사 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체육시설들을 많이 짓고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金榮助: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일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은 첫째, 서울올림픽 기념사업과 그 다음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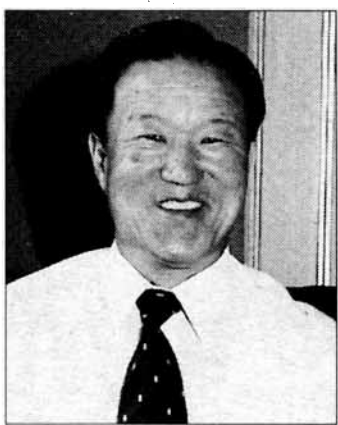
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원 획득방법으로는 월드컵복권사업, 경륜사업 등이 있으며, 기금 지원활동은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양성을 위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잔디구장이라든가 우레탄트랙 등을 설치하는데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 관리를 위해 서민 다수가 접근이 용이한 체육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연간 약 1천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시설과 지도자 양성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金道賢동문께서는 스킨스쿠버를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소용될 것 같은데 스킨스쿠버의 매력이란가 장점을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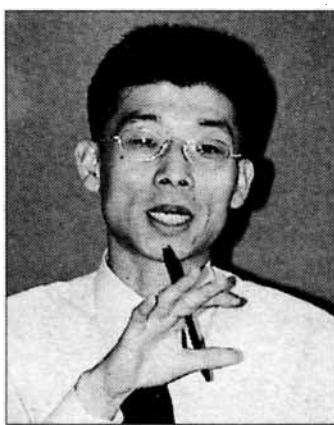
金道賢: 요즘 각 해안가마다 장비를 다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는 꼭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하는 스킨스쿠버만을 생각하는데, 산소탱크 없이 물안경만 가지고 맨 몸으로 들어가는 스킨다이빙도 있습니다. 수영복과 수영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바다 속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경쟁만을 의식하는데, 바다에서는 신사도도 배울 수 있으며, 바다 속의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스킨스쿠버 서클을 만들면서 이런 장점 때문에 미대 학생들에게도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金光熙



金榮助



李龍植



金慶洛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를 접하다 보니 지덕체가 조화를 이룰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킨스쿠버는 신사도, 그리고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스포츠로서 지덕체를 충분히 함양시켜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해외출장 때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맨손체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상을 과하게 먹어 건강도 해치고 해서 늦게나마 몇 년 전부터 골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골프를 사치성 운동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각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손 체조와 골프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 회: 맞습니다. 몇 년 전 만해도 골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골프가 술 문화를 바꿔 놓았다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술로 몸을 버리는 것보다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赫憫: 동문께서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불링협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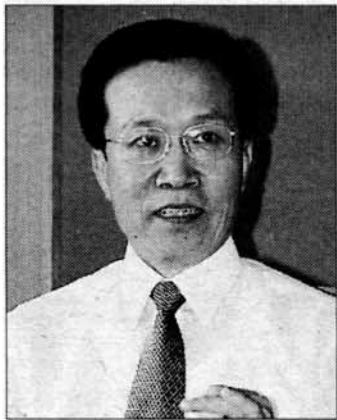
權赫憫: 저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제가 모교 병원에 근무할 때 여러 가지를 연구해보았는데, 대체로 병원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술을 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을 비교해서 연구해보니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좋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저는 불링을 택했습니다.

모교 병원 불링부를 만들고 운동을 하려고 보니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불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불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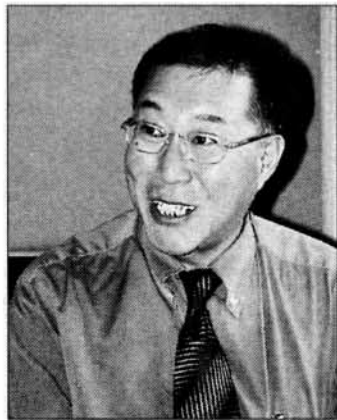
崔大燮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한 가족 4대가 같이할 수 있는 운동이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90대 선수들도 많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 시간이나 복장에 제한을 덜 받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재미도 있거든요. 불링은 핸디캡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치는 사람과 못치는 사람들간의 게임이 가능하고, 가족간의 스킨십이 다른 운동보다 많고 대화의 시간도 많



權赫憫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대회에 진출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문께서 각 종목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원에서는 현재 종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따로 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金道賢

우리는 언제나 일정한데, 선진국의 운동시설을 보면 어린 아이들 신체사이즈에 맞게 스포츠 기구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쉽게 운동기구나 시설에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점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항상 일정한 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설과 기구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편입니다. 이런 업체

활체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權赫憫: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나라 스포츠의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는 별개로 엘리트 선수만을 양성시키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쿠바 등 4개국 밖에 없어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국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표선수가 되고, 다시 돌아와 그 선수들이 국민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 회: 40대나 50대 동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병증 뇌졸중과 심장병인데, 이러한 성인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현대인의 건강에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F.I.T.T.」(Frequency, Intensity, Time, Type)라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F」는 빈도를 의미하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I」는 운동강도로써 자기의 체력에 맞게 설정을 하되 본인의 최대 심박수(220 - 연령)에 40~80% 정도로 운동해야 몸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또 「T」는 시간을 의미하며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운동시간이 최소한 20분 이상 돼야 합니다. 마지막 「T」는 운동형태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고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 모든 동문들이 한 가지 운동을 하신다면 남보다 뛰어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개인과 사회에 활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 동문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동문가족에 건강과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만 육성하면 생활체육 발전 못해

「F.I.T.T.」규칙 준수·가족 중심 프로그램 개발해야

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불링을 하는데, 저는 늘 장비를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불링을 열심히 친 덕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중, 허리둘레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金光熙: 저는 남들이 밤 세 끼니를 챙기듯이 네 끼니를 챙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끼니 중에 한끼를 운동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일할 때 효율성이 중요하듯이 운동할 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권赫憫동문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스쿼시는 실내운동으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당한 운동이죠.

李龍植: 저는 그다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테니스를

가족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金慶洛: 전국테니스연합회와 생활체육연합회가 같이 연계해서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정규 코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단식 경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용 코트에서 경기하는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트가 그 아이들에게 맞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성인에 비해 체구가 적은 아이들은 자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李龍植: 연구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종목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 그곳에는 테니스코트의 길이와 네트 높이에 맞게 되어 있었습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로 학생 동아리들이 조합을 만들어 대량 구입하고 기구나 시설 개발 업체들에게 지원도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은데요.

사 회: 앞으로 주5일제 근무와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金慶洛: 꿈나무를 키우는 행사에서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하다가 코치나 감독의 눈에 띄어 선수로 발탁돼 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체육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엘리트 체육으로 간 그런 아이들이 과연 생



42년 강단생활 마감한

문학적 상상력의 귀재 **李御寧동문**

“「고전읽기」 통해 내 지식 다 토해내고 싶어요”



「2000원권」 발행·「천년의 문」 건설 못이뤄 섭섭

“항가·춘향전에서 현대작품까지 분석”

한 반론도 나오는데...

『평소에도 이야기하지만 메아리가 있어야 소리를 지르죠. 메아리가 없으면 힘이 빠져서 소리를 못 질러요. 뭘 썼으면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메아리가 있어야 울리잖아요.』

일본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나의 퇴임 기념 논총「상상력의 거미줄」에 이렇게 썼어요. 「1970년대 이후, 일본인·일본 문화론의 붐이 일어 일본인에 의해서도, 서양인에 의해서도 무수히 많은 책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나의 관심을 끈 유일한 책은, 한국의 비평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이었다. ... 그러나 이 책 역시도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키워드로 일본문화를 전부 설명하려고 하는데 16세기 일본은 해당돼도 다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런 비평을 읽어보면 저런 시점에서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생각하죠. 이게 글쓰는 사람들의 재미인 겁니다」

— 그 동안 출간하신 책이 전부 몇 권이죠.

『중복된 것 등을 포함하면 1백 권이 훨씬 넘고, 편저 등을 빼내면 50권 정도 될 거예요』

— 일찍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일을 하셨어요?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숨쉬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20~30장씩 꼬박꼬박 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글쓰기 시작해서 약 50년 동안. 특히 20년 가까이 매일 일기 쓰듯이 칼럼을 썼잖아요. 지평선, 메아리, 만물상, 분수대 등』

— 제일 많이 쓰신 때가 언제였나요?

『역시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썼지요. 남들은 편안하게 많이 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글 한번 쓰려면 머리 다 쥐어뜯고, 손가락 꺾고, 담배 비벼 끄고. 자학증세가 없는 사람은 글 못 써요. 글쓰는 사람은 자기학대주의자

(masochist)예요. 글쓰기란 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육체노동에 정신노동을 더하는 거지요. 장편소설 「둥지속의 날개」를 쓰기 전, 그러니까 일본 가기 전인 78년쯤엔가 병에 걸렸었잖아요. 아무 것도 못 먹고, 토하고』

— 저서 가운데 「축소지향의 일본인」 다음으로 뭘 꼽으시겠어요.

『자랑같지만 「말속의 말」, 「시 다시 읽기」, 「문학공간의 기호론」 등은 내가 아니면 못 쓰는 글이에요. 나는 내가 best one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unique, only one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글쓰는 사람이 많지만 이름을 가려놓으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나는 이름을 가려놓아도 「아! 이건 이 아무개 글이다」라고 할만큼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 그런 문체를 만들어낸 데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문체란 얼굴이나 지문처럼 배어나오는 거죠.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나요. 마치 걸음걸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이에 특징이 있잖아요. 일부러 잘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호흡처럼 썼기 때문에 내 캐릭터가 스며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명서, 해명서, 진술서 같은 글은 진짜 못 써요. 남들이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칭찬장 문구 같은 걸 부탁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절대 못 써요. 그런 부탁은 화가에게 간판을 그려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 72년에 「문학사상」을 창간했는데,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당시 지방에 문학강연을 다녔는데 요즘 HOT나 GOD 공연처럼 호응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문학잡지를 하나 만들게 된거

(9면에 계속)

올해는 유난히 정년 퇴임한 명사들이 많다. 국문학계의 거장 모교 金允植교수, 국내 한문학 대표주자인 모교 閔丙秀교수, 가야금 연주의 대가인 이화여대 黃秉翼교수를 비롯해 우리 나라 학계를 이끌어오던 거장들이 정년을 맞았다.

특히 1956년 22세의 나이로 「우상의 파괴」라는 평론을 발표, 기성문단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며 등장한 이후, 20세기 후반 한국 지식사회를 대표하는 천재로 통하던 李御寧(5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고문)교수가 지난 9월 7일 고별강연을 갖고 35년간 몸담았던 이화여대 캠퍼스를 떠났다.

본보 朴聖姬논설위원이 그를 만나 강단인생에 얽힌 이야기, 그 동안의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담 : 본보 朴聖姬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은퇴하신 게 실감나세요?

『타의에 의해 은퇴했으면, 뺨을 얻어 맞거나 등을 때릴진 것 같은 충격이 있겠지만 내 스스로 결심하고 강의를 그만둔, 그야말로 준비된 은퇴(?)라서 의외나 뜻밖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은퇴라는 게 숨어서 물러가는 건데 본의 아니게 현퇴 즉, 드러내 보이면서 시끄럽게 퇴장한 결과가 됐어요. 사실은 조용히 숨으려고 했는데,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고별강연회를 하는 등 공인으로서의 마지막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 석좌교수는 정년제가 아닌데 왜 대학강의 등 모든 사회활동을 그만둘 생각을 하셨어요?

『내년이면 칠순이 됩니다. 그때 물러나면 비참할 것 같았어요. 진짜로 연령에 쫓겨서, 늙음에 의해서, 교회라는 딱지가 붙어서 그만 두는 것보다는 그전에 돌아서는 것이 보기에 좋고, 정리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심리가 작용했지요.』

또 그 동안 기억력이 비교적 괜찮은 쪽에 속했는데 요즘엔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사실 이게 직접적인 충격이었어요. 결국 더 이상 기억력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글을 써야겠다, 남을 가르치고 강연하는 것보다 글로 남겨서 기억의 흔적을 문자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www.oyoung.ne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교가 아닌 사이버

세계의 젊은 사람들과 만나고, 글을 올리고 정리해서 책을 펴내는 등 내 머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가자는 것이 마지막 남은 사명이자 희망입니다』

— 사이버 세계와 활자미디어를 통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에도 우선 순위가 있을텐데요.

『바로 「고전 읽기」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일반화하고 이념화하려고 하지, 실제 작품을 꼼꼼히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텍스트의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요. 텍스트는 끝난 언어, 문자가 아니고 끝없이 의미를 산출하는 우물물 같은 것이죠. 왜 그걸 죽은 석빙고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 한 한국에 이 작품만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고전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 언제적 작품부터 분석하실 건가요?

『항가, 춘향전부터 李 箱, 李孝石 등 현대작가의 작품까지 망라할 작정입니다. 가령, 항가에 「生死路」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Sangsara(輪廻)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梵語)예요. 죽고 사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를 뜻하는 Sangsara를 生死路로 음역한거죠. 이것을 아무도 못 읽더라고요. 중국에서 코카콜라를 可口可乐이라고 하듯이 Sangsara를 生死路라고 한 것이죠. 중국 불경에는 윤회가 「生死」로 나와 있어요. 즉, 범어를 음역한 이두(吏讀)인거죠.』

이렇듯 고전에는 읽어야 할 것,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수도룩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지요. 내 머리와 가슴에 들어있는 것을 토해낼 때까지 다 토해내고 싶은 겁니다』

— 항가 다음엔 어떤 것을...

『청산별곡 등 고려가요에서 현대 김소월의 시까지 내 머리 속에 든 걸 하나씩 허락하는 그날까지 전부 쏟아놓을 작정입니다. 출판사(현암사)와 계약도 그렇게 했지요』

— 그 동안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지요.

『82년 일본에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쓴 일이죠. 지금도 일본 대학시험 문제에 내용이 지문으로 사용되고 영어와 일본어 대역본이 출간돼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에선 책을 써서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딱 한 권 쓰고도 상을 서너 개 타고, 번역돼 전 세계로 나가고 있구나...』

—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일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 전문을 어느 잡지에서 실었어요. 그것을 일본 대사가 읽고 아까우니 책으로 만들자고 해서 1년간 국제교류기금 지원을 받아쓰게 된 거죠. 우리 나라에서도 누가 나에게 1년 동안 지원해 줄테니 책 한 권 써봐라 그랬으면 참 좋은 책을 몇 권 썼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 젊음을 그렇게 버린 것이 너무 아까워요』

— 최근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대

모교병원 일반외과 전공의 鄭喜斗동문

조선일보에 「병원블루스」 연재

“만화로 의료계 현실 알리는데 힘 쏟겠다”

지난해 7월 의약분업 반대로 모교병원 파업 당시 「허준 생각」이라는 만화가 유인물과 책자 등을 통해 의사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만화가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같은 의사가 그렸다는 점 때문이다. 의사로서 겪고 있던 답답한 현실들을 꼬집어 표현한 내용과 기교에 많은 의사들은 동감했고, 관심도 없었던 일반인들조차 그림으로 쉽게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만화 「허준 생각」은 많은 의사들의 대변인이었다. 모교병원 전공의 4년차 鄭喜斗(97년 醫大卒)동문, 그가 바로 「허준 생각」을 그린 주인공.

그 후로 鄭동문이 만화가로서 정식으로 데뷔한 것은 주간 「청년외과」에 「닥터 딜레마」를 연재하면서부터이다. 그의 만화는 의사들과 환자 그리고 병원간의 모순과 갈등을 담고 있다. 많은 의사들의 호응 속에 연재되었던 닥터 딜레마는 「병원블루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대중지에 연재하는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의료계의 현실을 다 표현은 못하지만 점점 의료계의 현실을 알리는데 힘을 실을 예정이다.

원래 그의 꿈은 만화가도 의사도 아니었다. 그

가 꿈꾼 것은 공군장교였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희망이었던 그는 부모님의 만류에 꿈을 접고 삶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의대를 지원했다. 국내 혹은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포부였다. 이렇게 시작한 의대 생활의 출발점은 만화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鄭동문에게 의대 생활 중 피해갈 수 없었던 관문이 학생운동이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가 「도리아마 아키라」의 만화를 조합해서 운동권 포스터와 대자보에 그려 의대 학생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곤 했다. 적어도 간호대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운동권 성향이 강하던 간호대에서 그의 만화가 외색문화가 질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그 후로는 만화를 그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붓을 잡은 것은 의료계의 모순을 세상에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정말 의료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는데, 대자보나 유인물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버리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고 방법은 만화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린 것이 「허준 생각」입니다. 만화를 그릴 당시에 다섯

편으로 시작했다」고 그때의 답답한 심정과 만화를 그린 이유를 말했다.

처음 그의 만화는 흑백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색에 대해 배우지 못했고, 두 번째는 포토샵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어머니한테서 배운 그의 미술 실력은 오늘날 의사이자 만화가 鄭동문을 만들어준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색칠하는 것을 배워야 할 시점에 그는 중학교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배우지 못한 것이 지금 그가

만화를 그릴 때, 이런 곳은 무슨 색으로 칠해야 할까 등등의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포토샵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던 그는 처음에는 신부인과에 있던 동료한테 부탁해 색을 칠했고, 나중에는 광고계 또는 디자인계의 知人들에게 조금씩 배워 이제는 스스로 포토샵을 통해 색을 칠하고 있다.

짧고도 간결한 그의 만화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가령 응급실 옆에서 환자복을 입고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는 할아버지를 통해 열악한 병원 내의 현실을 느낄 수 있으며, 응급실에 실려온 칼에 찔린 외국인이 단돈 3만원을 내밀며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국내 의료계의 상황을 안 외국인이 우리에게 마음 아픈 현실을 전달해준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겪은 경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만화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 그는 의사들이 전달하는 논리적인 말들은 일반인들이 대강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심정적으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지로 전달하는 만화는 이런 것들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열 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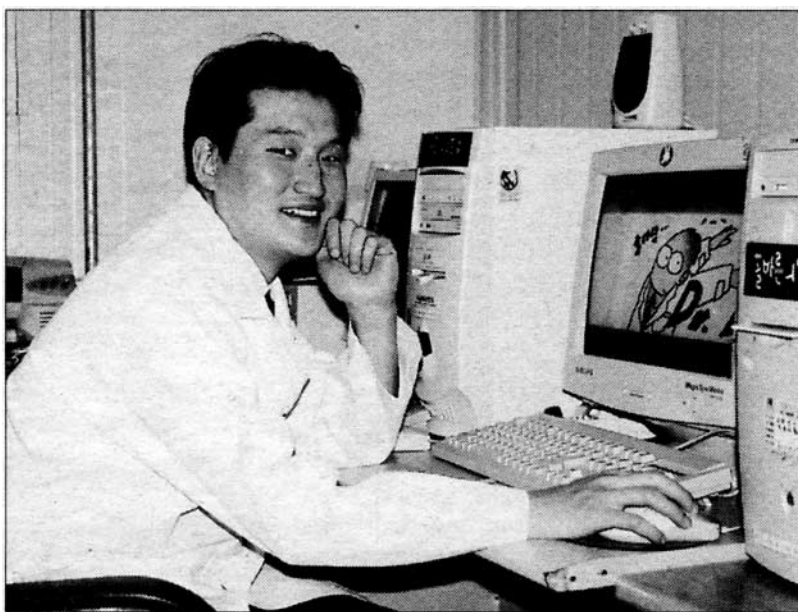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어머니나 아내는 제 만화를 좋아하는데, 장모님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의사를 그만두고 만화가가 될까봐 그런 것 같다』고 말해 그가 의사 아닌 만화가로 나설 꿈도 내비쳤다. 의료계의 현실이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고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밖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의사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요즘 그의 삶에서 위안을 주는 것은 만화를 그리면서 독자들에게 메일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잘못에 대한 질타를 기대했던 그에게 온 격려의 메일들은 의사란 직업에서 못 느낀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앞으로 그는 잘못된 의료 상식들이 난무하는 우리 나라에 쉽게 의료에 관한 지식들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색다른 형식으로 만화를 그릴 계획이다.

鄭동문은 나이가 좀 더 들어 아내와 같이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 꿈이다. 모교 대학 정문을 처음 내딛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라고 한다. 돈이 아닌 의사로서 진정한 보람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마지막 그가 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아무리 잠 안자고 노력해도 의사 일을 하는 동안엔 죽는 환자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만화가로 일하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亨)



(8면에 이어)

지요. 다른 잡지와 달리 처음부터 표지에 李 箱의 얼굴을 싣는 등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죠. 尹伊桑의 「심청전」을 창간호에 게재하는 등 어느 잡지도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 문학사상사 주간, 초대 문화부 장관, 새천년준비위원장 등 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람있었던 것과 아쉬웠던 걸 정리해주시죠.

『보람있는 일에는 반드시 아쉬움이 따르는 것이죠. 글쓰는 것과는 달리 국가 행사의 경우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88서울올림픽 당시 분단국가의 이념, 남녀차별, 지역적 인종차별, 언어 등 갖가지 벽을 넘기 위해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주창했는데 「도둑도 아닌데 벽은 왜 넘느냐」는 등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서울 올림픽을 다른 올림픽과 차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구호였는데...

또 2000년에 2000원권을 발행하자고 주장했어요. 기념물이 아니고 화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들이 행운의 지폐라고 여겨서 선물로 주고 액자에 꽂아 두면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되는 일이었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냈는데 매스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이루지 못했어요. 국가적인 낭비도 화폐단위의 교란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일 한다는 등 빛나간 새천년이라는 둥 하며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떨까요. public service라는 생각에, 이 민족에게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주고 싶어 주야로 뛰는데 욕을 해대니. 다시는 public service를 안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천년의 문」만 해도 내 아이디어로는 미래형 박물관을 짓자는 것이었어요. 12개 대문을 10년에 하나씩 지어가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모든 자료를 캡슐에 넣어 말고, 10년 단위로 이 타워에 넣어 100년 뒤에 보면 엄청난 보물이 될 테니까요. 2100년에 준

공식을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또 지금 포항에 가면 2000년 1월 1일 최초의 햇빛을 채화한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돈 한푼 안들인 것이죠.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때 성화 하나는 아테네에서, 다른 하나는 포항에서 채화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새 천년 첫날 밀레니엄 베이비 탄생을 현장 중계한 건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올림픽 때는 FM채널을 이용해 13개 국어로 동시통역을 하도록 했어요. 운동장 안의 사람들이 전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수민족 언어까지 중계하도록 한 거죠. 각자 자기네 언어로 해설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 끝으로 부인 姜仁淑(56년 文理大卒)여사와 둘째 며느리(李裕美·91년 師大卒)도 동문이신데,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이나 후배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서울대를 나왔지만 사는 동안엔 서울

대와 별로 인연을 갖지 못했어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강연했는데 서울대에선 초청받지 못했어요. 일본대학에선 국어시험에 내 글을 인용하는데 서울대 입시에선 한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서울대를 위한 일을 적지 않게 했다고 생각해요. 서울대에서 배운 것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공부하지 않은, 서울대 토박이가 국제대회에서 하버드대나 브라운대 출신들과 당당하게 세미나를 하고, 강연하는데 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서울대가 인정받는 길이지 않았겠어요. 또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듯 언제 어디서든 서울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미운 쪽보다 사랑 쪽이 더 커지나 봅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에 포함된 몇 가지 내용은 다른 곳에선 하지도 않고 못하는 얘기들인데 동창회보라서 한 겁니다. 모쪼록 불평이 아닌 응석을 부렸다고 여겨주세요」

— 바쁘신데 오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⑥3 한미파슨스(주)

“건축의 기획, 시공, 유지 맡겨만 주세요”

첨단 건설사업관리의 새로운 지평 열어

한 평생 벌어들인 돈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지금 지으면 2년 후에 분양이 잘 될 수 있는지, 건설비는 평당 얼마 하는지, 설계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몇 층을 지어야 가장 경제적인지, 또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서 값싼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지, 그런 업체를 아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그 업체가 믿을만한지 등 시작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끝이 없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가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설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금액단위 역시 여타 업종보다 크므로 단 한번의 실수가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건설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잘 관리하면 어느 업종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역시 건설업.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영역을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이하 CM)라고 하는데, 국내 처음으로 CM개념을 도입해 현재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자리를 고수하는 기업이 있다. 지난 1996년 CM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인 미국 파슨스사와 합작, 그 기술력을 도입해 설립된 한미파슨스(주) (사장 金鍾勳·73년 工大卒)가 바로 그 기업이다.

앞서 언급한 CM이란 건축주(발주자)를 대신해서 모든 건설사업의 관리를 대행해주는 용역을 말한다. 특히 건설사업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주, 시공,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대리인 및 조정자로서 건설업의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발주자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 양질의 건축물을 적기에 인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파슨스 (www.hanmi-parsons.com)는 이러한 관리를 통해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건설과 관련된 여러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기본설계는 튼튼하게, 품질은 한층 더 향상시켜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win-win」전략을 내세우며 작년 한해 1백36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으며, 올해에는 약 2백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CM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건설업계에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문제를 안아 왔으며, 부실공사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주자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시적으로 건설본부를 조직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타당성 검토, 설계과정 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의 기획을 제대로 설계해야 하는데 국내 건설업계는 이러한 점을 상당수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탓이었다. 이를 발 빠르게 간파한 金사장은 세계 최고층빌딩인 말레이시아 KLCC빌딩의 현장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관행에 CM을 접목, 현재 국내건설 산업 발전의 Pioneer적 역할을 담당하며 건설사업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金鍾勳 사장

金사장은 특히 「똑같은 건물을 짓는 데에도 한국은 미국보다 건설비용이 30%정도 비싸고, 공사기간도 3배정도 길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Rose-nwasser-Grosman社로부터 건물 한 층을 이틀만에 지을 수 있는 「2-day사이클」 선진공법을 도입했다」며 「이 공법을 적용하면 층당 10~15일 걸리던 골조공사가 2~4일로 단축되며 공사비도 5%내외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도곡동 TOWER PALACE I, II, III, 분당 TRI-POLIS, 현대산업 I-PARK,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 동대문 패션몰 메사, 부산 신항만, 보광 피닉스 파크, 슈렘버저 프로젝트, 대한주택공사 을지로 재개발 사업, 삼성그룹 유럽구주 본사 사옥, 국민은행 본점 사옥, 삼성에버랜드 캐리비언베이호텔, 삼양식품 본사 사옥 등 이들 모두가 한미파슨스의 꼼꼼한 손을 거친 「완성품」들이다.

이 중 가장 팔목할만한 사례는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CM공사를 맡았다는 것. 1998년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조직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후보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위원이었던 金사장은 IMF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신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제출, 1주일간의 공방 끝에 채택되어, 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당초 올해 말 준공일을 두 달 정도 앞당길 전망이다. 이는 한미파

슨스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CM 사업관리방식 도입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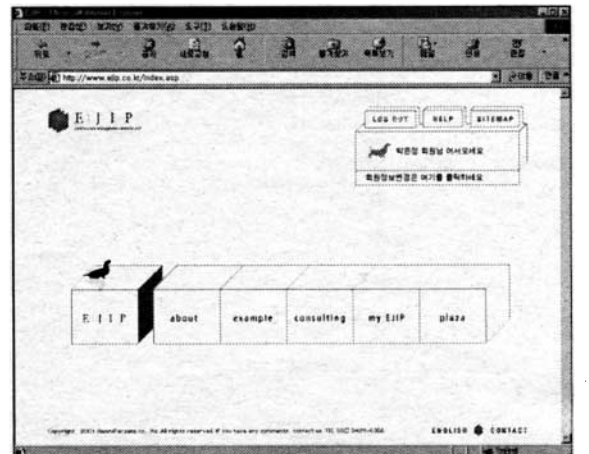
특히 한미파슨스는 대형 건축물의 CM뿐만 아니라 올 7월부터 중·소규모 건축물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중·소규모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고민을 덜어줄 온라인 사이트(www.ejip.co.kr)를 개설했다. 단독주택에서 전원주택, 동호인주택, 근린상가, 원룸, 자투리땅 개발 등을 건설관리 해주는 「ejip」은 건물의 최초 수립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건축주를 대신해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설현장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해 시공업자 사이의 분쟁, 및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M전문 사이트(www.cmhub.com)를 통해 종합 부동산 개발 컨설팅과 건설관리 정보 및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는 회사 이익금의 10%를 장애인복지단체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사용할 예정이라고 金사장은 밝혔다.

(表)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직접 건설사업관리함.



중·소규모 건축물 전용 CM사업관리 사이트.



현암약국 權景坤대표약사

부인·두 아들과 두 딸 내외 등 10명이 동문

건강·명에 존중을 인생의 가치로 삼아



뒷줄 좌로부터 宋垠始·權宅均·權哉希·金東玟·玄眞珠·權宅珍·權京希·崔健동문. 앞줄 좌로부터 金順子·權景坤동문.

마포에 위치한 서울대동창회관을 지나 도보로 약 3분만 걸으면 「현암약국」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35년 된 이 약국에는 이제 모두 출가시킨 두 아들과 두 딸의 앞날을 기원하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진력을 다해온 부부가 살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초대이사장을 역임한 權景坤(60년 藥大卒)동문과 부인 金順子(61년 藥大卒)동문.

2남2녀, 게다가 두 며느리와 두 사위까지 모두 동문인 관계로 언론사 및 방송국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자랑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모두 고사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창회보에 소개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고 말하는 權동문. 그러나 같은 동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사회에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서울대인으로서 받는 편견들을 다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작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터를 잡고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혼기의 나이에도 본업에 충실하며, 음과 양으로 주변을 도울 수 있으면 이를 실천하려 한다고 權동문은 덧붙였다.

醫家 집안이었던 내력(?)으로 모교 약대에 들어간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말하는 權동문은 같은 캠퍼스에서 1년 후배인 부인 金順子동문을 만났다고 한다. 이공계통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인 예술계통의 배우자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설(?)이 있지만 같은 분야를 전공함으로써 의학·약학계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 등 할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그 동안 쌓아온 공통된 이슈로 대화가 끊이지 않아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차녀 權哉希(93년 醫大卒·미즈메디 산부인과 전문의)·金東玟(93년 醫大卒·모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동문 내외와 차남 權宅均(94년 醫大卒·양평 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宋垠始(96년 醫大卒·모교병원 임상병리학 전문의)동문 내외 역시 같은 전공자를 배우자로 삼았다.

한편 맏딸 權京希(87년 藥大卒·모교

약대 출신이다. 모두 하늘의 뜻이었지만, 崔健동문과 權宅珍동문은 공대 선후배 사이로 이미 학교에서는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 또한 權宅珍동문이 약대를 졸업한 부인을 두게 된 이유는 미국 유학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또래 한국인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이 상하게도 부모님과 같은 전공을 가진 당시 유학생이었던 玄眞珠동문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차녀 權哉希·金東玟동문 내외는 같은 해에 모교를 입학하고 같은 해에 졸업한 동기동창이라 1주일 내내 서로 마주치며, 의사의 길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줄 수 있던 사이라 부부로 맺어지는데에는 다른 자녀 부부에 비해서 다소 극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고, 유학 시절 알게 된 것도 약간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병원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막내 내외의 경우는 다소 남다르다. 당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던 金順子동문은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들을 극진히 보살피던 지금의 둘째 며느리 宋垠始동문을 만나 아들인 權宅均동문과 맺어졌다.

이들 여덟 명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모두 박사학위까지 났었다는 것. 어쩌면 이에 대해 배 아파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과정들은 전적으로 자녀들 스스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 2남2녀 모두를 서울대인으로 키우는데 늘 상 남들보다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고민 아닌 고민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은 없었다고 한다. 네 명 모두 장학금으로 대학생활과 미국유학생활을 마치게 돼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맡겨진 자신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준 것 밖에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장녀 權京希동문은 美필라델피아대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약학을 전공, 이번 2학기에는 3백50여 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신청한 「약학 건강」이라는 대형(?) 교양강좌를 맡기도 했다고. 또한 장남 權宅珍동문은 무선통신분야에 새로운 방식을 개발, 현재 美UCLA대 교수들과 함께 특허를 낸 상태이며, NASA에서조차 그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權景坤동문 내외는 자녀들이 하는 분야에 대해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제대로 걷고, 사망감을 가지고 말썽 없이 잘 커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후원해주는 것만이 남은 일이라고 權동문 내외는 말한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셋째는 명예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관으로 삼았다는 權동문. 사실 친척 등을 포함해 가족 중 모교 동문이 약 40여 명이나 된다. 그러한 이유로 친척 동문들은 가족 10인이 모두 동문인 자신의 가족을 하나의 잣대로 삼고 있어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는 반면 앞서 언급한대로 더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表)



가야할 길이 멀고도 먼 환경현실

朴鍾植(71년 文理大卒)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우리는 그 동안 압축경제 성장전략으로 많은 외형적 성과를 가져왔다. 기초과학기술의 축적 없이도 외국기술 도입과 창의적 응용기술로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 기술을 발전시켰다. 또한 이에 따른 많은 상품화의 성장들이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성장에 따른 폐해도 많이 발생했다. 인터넷 사업에 따른 편리성과 효율성만 추구했지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파급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성장추세에 뒷다리 잡는 식이라고 비난받기 십상이었다. 한마디로 과정 생략 속에서 결과 중심적인 성장전략이 갖는 문제점이다.

그러나 빨리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자원 없는 국가에서 수출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택된 전략일 수도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의 노력으로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우선 상품을 만들고, 돈벌고, 그

돈으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여 신상품을 만들고 또 돈벌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세계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여준 성공한 사례의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경제 성장전략으로 모든 삶의 질적 요소가 그렇게 빨리 충족되고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환경개선분야에선 더욱 그러하다.

수질개선, 대기보존, 폐기물처리 등 최근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동안 천문학적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성과는 미미한 개선뿐이었으며 일부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소득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욕구는 점차 증가되어 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 욕구 수준은 우리의 경제수준을 훨씬 넘어선 3만 불 이상의 선진국형 국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현실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상·하수도 부분의 기초시설투자에서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문제, 쓰레기 소각장건설 등 많은 천문학적 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시설 투자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환경분야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오염원의 수요 감소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병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수원의 오염원을 정화해야하고 폐수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오염원의 배출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재활용의 순환사회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절대적으로 생활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우리의 생활 실천철학으로 몸에 배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일본, 독일 등 경제선진국에 비해 20~30%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철학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러

서부터 환경교육으로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선진국의 유아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기초 생활교육을 통한 에너지, 물 절약을 실천시키게 하는 「절약생활」 교육의 장이 그들 사회, 국가가 환경개선을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교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문제는 감성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는 잔칫상 문화, 직장 생활에서는 회식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환경개선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지만 환경개선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가을과 함께 온 「마지막 삶」의 의미

許聖伊(87년 看護大卒)삼성서울병원 내과 수간호사



서늘한 바람으로 아침을 깨우는 오늘은 창문을 열기도 전에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올 것만 같다. 젖혀진 커튼 사이로 나의 기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파란 하늘이 서 있다. 아! 벌써 가을은 이렇게 조용히 우리들 곁으로 자리를 잡을 모양인가 보다. 앞집 아주머니도 밭하던 손을 털고 무심히 밖을 쳐다본다. 하지만 나의 하늘을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축 처진 눈가에서 주름처럼 흘러내리는 뺨가를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지난 달 어머니를 여의셨던 일이 생각나셨나 보다. 유난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아주머니이셨는데, 그녀의 어머니께서는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 달 지금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저 편으로 떠나셨다. 잠깐이나마 가을을 느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미안해진다. 그리고 그 미안한 생각은 이내 여러 갈래의 사연들 속으로 나의 마음을 데리고 간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껏 병원이란 곳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사연들을 보았던 것 같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거쳐 지금은 임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말한다면, 그도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게다가 병원에서의 14년이 훌쩍 넘어 버린 시간의 무게를 더하면 가슴

저미는 그런 사연들은 끝이 없다. 병원이란 삶은 늘 그랬다.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지막 자신의 삶을 위해 애써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거리고 온 가슴으로 함께 그들의 삶을 안아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깨우침을 갖게 했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의미에서 손끝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어제도 나는 이렇게 서늘한 바람 부는 날, 아름다운 한 영혼을 부는 바람에 실려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시간 3개월을 병원에서 떠나질 못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암으로 인한 통증과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 속으로 자신을 점점 빠져들게 하면서 병상에만 누워 그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가족과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저 두려워만 했다.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고통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다. 남겨진 가족의 험한 두 눈에는 그의 마지막 고통의 모습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대부분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

에게서 많이 접하는 모습일 게다. 우리는 마지막 그의 삶의 의미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그의 단순한 신체적 아픔만을 달래 주고자 그저 병원에 묶어 두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른 고통으로 그를 이끌어 가곤 했다. 그는 침상에만 누워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을 무던하게만 보냈다.

침상에만 누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게 한 우리 사회의 그에 대한 책임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가 우리 사회는 그랬다. 사랑하는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같은 시간을 만들어 내었던 그 가정의 공간에서 정작 마지막 그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아름다운 그의 삶을 함께 정리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병원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는 위로를 갖게 하면서 말이다.

몇 달 전 한동안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기사가 떠오른다. 우리 사회는 경악했다. 단순히 죽음과 삶이란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느냐는 것이

었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수많은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온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할 때가 된 것 같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수 해 전부터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바로 우리 사회도 그런 삶의 가치를 위해 한 걸음 내딛으려는 시도가 그런 소극적 안락사란 것으로 잘못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일부 병원과 종교 봉사 단체에서는 그런 활동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호스피스의 의미는 죽을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맞을 삶의 마지막 선에 있는 죽음을 대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숨겨진 고통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삶을 재충전시켜주는 그런 것이다.

오늘도 나는 또 다른 고통의 삶을 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일은 고통의 삶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삶을 대하고 싶다.

모교소식

학칙 개정...9월 1일부터 시행 본부조직 3처·1실·2국으로 줄여

모교는 모교의 설치령 개정(2001. 3. 2)으로 교육조직과 행정조직 등을 학칙에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시행하던 학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학사운영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개정학칙」을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수렴(8월 4일~8월 11일), 기획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 심의(8월 13일), 학장회의(8월 23일), 평의회 심의(8월 30일) 등을 거쳐 지난 8월 31일 공포했다.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학칙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학칙의 기본구조를 장·절로 개편(현행 16장을 6장 16절로 개편). △협동과정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실적을 매 2년마다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함(제6조 제2항). △교수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임교수를 대학,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도록 함(제7조). △모집단위와 교육조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 학생의 소속을 모집단위 또는 교육조직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함(제13조). △현행 법정, 비법정 부속시설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맞게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로 구분하고,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동시설 제외)은 매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토록 명시하고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19조). △지원시설로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를 신설하고 입학관리본부와 학술정보원에 입학관리과와 정보화담당관을 각각 두고 사무분장을 명시함(제20조 내지 제22조). △처·실·국 조직을 3처 1실 2국으로, 과 또는 담당관 수를 16개로 개편하고, 대학행정실을 15개 범위내로 조정하여 각각 사무분장을 명시함(제25조 내지 제32조). △재정위원회 및 정보화위원회를 학칙에 반영하고 교양교육위원회와 교과과정위원회의 명칭을 기초교육위원회와 학사운영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여 학사관련 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함(제35조 내지 제41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수업 주수를 30주 이상으로, 학점 이수시간을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제44조 제1항 및 제65조). △조기졸업 사전 승인제(24학점까지 취득)를 폐지하고 학기당 취득 학점을 직전 2개 학기 평균평점이 3.3 이상인 경우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제2항). △소정의 기일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석·박사학위 수여 요건을 강화함(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이번 학칙 개정에는 본부 조직들이 통합되고, 학내 기관들의 위상과 명칭이 바뀌게 됐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실·국의 수를 6개로 줄여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실, 사무국, 시설관리국을 둔다. △과를 16개로 줄여 교무처의 학적과와 수업과를 학사과로, 학생처의 장학과와 후생과를 복지과로, 연구처의 연구지원과와 연구진흥과를 연구지원과로, 사무국의 경리과와 관재과를 재무과로 바꾼다. △대학행정실장을 15명으로 줄여 행정·보건·환경대학원, 간호대, 수의대에 행정실은 두되 행정실장은 두지 않는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연구소 평가를 계기로 일반 연구소와 기능이 다른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는 각각 언어교육원과 대학생생활문화원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자문단 「블루리본 패널」 구성

유명대 전·현직 총장급 인사로

모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대, 일본 동경대 등 외국 유명대의 전·현직 총장급 인사들로 서울대의 현재를 진단하고 비전모색을 조언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대학협회의 현지 로즈스키 前 하버드 문리대학장과 로드 옥스버러 캠브리지대 부총장, 하스미시게히코 前 동경대 총장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최정상급 대학행정 전문가 6명을 한시적 최고의 자문단인 「블루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에 위촉했다.

자문단은 지난 10월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교수, 학부모 대표, 교육부 및 정·재·학계 관계

자 등 각계각층의 교육주체들과 포럼형식으로 만났으며, 모교 운영구조에서 인사 및 학사행정 등 행정전반과 대학의 자율성, 서울대의 사회적 위상 등에 이르기까지 모교의 현주소와 미래를 검토했다.

또한 모교 정책을 진단해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한 뒤 이르면 연말께 2차 회의를 소집, 모교의 비전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과 교육관련 인사 등 70여 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

박물관

「2000년전 우리 이웃」 전시회

모교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2000년전 우리 이웃」을 주제로 「중국 요령지역의 벽화와 문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조양을 중심으로 한 요령성의 서쪽 요서지역은 중국 한대 이후 흉노, 선비, 오환 등 북방민족의 주요활동 무대가 되었으며 특히 동진시기에는 모용선비에

의해 세워진 前燕, 後燕, 北燕의 三燕이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했다.

이번 전시회 소개되는 유물들은 前漢代 이 지역의 고분(서풍서차구 고분, 금주 패각묘)에서 출토된 무기, 청동거울, 청동제 장신구 등 이른 시기의 문물과 함께 전연의 귀족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용기, 마구, 장신구, 토기, 자기 그리고 고분의 벽화(모사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연의 귀족무덤인 원대자고분의 벽화와 문물들은 우리의 삼국시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 10월 9일 강당에서 특별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중국 요령성박물관 田立坤관장, 동경대 早乙女雅博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귀족무덤 속의 수렵도.

모교 병원 외과·마취과팀

간손상 과다출혈 환자 살려내

모교 병원 수술팀과 제주의료원이 효과적인 협진시스템과 첨단 간이식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한 축적된 간이식술을 이용해 생존 가망이 없는 간손상 환자의 생명을 극적으로 살렸다.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주인공 김모 씨(여·28세)는 지난 8월 18일 제주시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 충격으로 간과 간정맥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돼 엄청난 출혈을 하며 제주의료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료진은 응급처치와 함께 개복을 했지만 이미 좌간정맥과 하대정맥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엄청난 과다 출혈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의료진은 협력병원인 모교 병원에 응급수술 협조요청을 한 후 긴급 항공편을 통해 21일 모교 병원 수술실로 이송했다.

만반의 수술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모교 병원 외과팀(李健旭교수)과 마취과팀(金聖德교수)은 그간 축적된 간이식술과 첨단 간이식 의료기인 급속수혈기(RIS: rapid infusion system)와 체외순환기(Biomedicus pump) 등을 충분히 활용해 3시간 여의 대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환자는 지금 현재 혈압 등 상태가 많이 호전돼 지난 9월 11

일 중환자실에서 외과병동인 51병동으로 옮겨졌다.

이번에 성공한 수술기법은 좌측 액와(겨드랑이)정맥과 좌측 대퇴(사타구니)정맥을 노출하여 정맥카테터를 각각 삽입한 후 체외순환기를 이용하여 「정맥 - 정맥 우회술」을 통해 이뤄졌다. 손상된 하대정맥의 위, 아래와 간으로 가는 간동맥 및 간문맥을 일시 차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술」과 「하대정맥봉합술」을 무사히 끝냈다.

특히 이번 수술에서 RIS(급속수혈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결과 1만3천cc 정도의 혈액만 소요돼 종전 RIS를 쓰지 않았을 경우 3만5천cc 이상의 혈액이 필요했었다는 것과 비교할 때 1/3의 혈액만 쓰고도 시술에 성공,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

張錦園 作



「무제」, 50×65cm, mixed media, 2000.

〈작가약력〉

- △71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74년 모교 대학원 졸업
- △75년 Minnesota Arts Fair
- △80년 「3 Painter's Show」
- △84년 美아리오와대 대학원 졸업
- △85~90년 서울 판화
- △85~2001년 개인전 9회
- △91년 「Women and Their Arts」
- △2000년 한국화회, 훈육전
- △2001년 「The Art of Asian Paper」
- △현재 덕성여대 동양화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제3회 「교육상·연구상」 시상



姜思旭교수

자연과학대학(학장 朴聖炫)은 최근 기초과학 교육에 헌신해오며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수리과학부 金泓鍾(78년 自然大卒)교수와 생명과학부 姜思旭(74년 文理大卒)교수에게 제3회 교육상·연구상을 수여했다.

교육상을 수상한 金교수는 「미적분학 1·2」 등 지난 10년간 모두 5권의 강의용 저서를 집필했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성향과 교육효과를 감안해 인터넷을 강의에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또 의예과, 치의예과, 농생대 학생들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과 차별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림으로



金泓鍾교수

써 학생들의 호응을 크게 받았다.

연구상을 수상한 姜교수는 생명과학에서 활성산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활성산소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상의 공적사항인 「새로운 superoxide dismutase (Nikel-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의 발견」은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커 국내외 유명 학회의 기조연설과 초청강연에 다수 초빙됐으며, 이 분야의 전문학술지 및 종합학술지에 논문들을 투고 또는 초청 집필한 바 있다.

받아왔다.

또 매년 다양한 시도와 기획으로 왕성한 연주역량을 펼쳐보이며 전국 각지에서의 연주를 통해 젊은 연주자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페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자 주세페 베르디의 대작 「라 트라비아타」의 주옥같은 아리아 하이라이트와 더불어 번스타인, 맥도웰, 아놀드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동양음악연구소

동양음악 국제학술회의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소장 吳龍祿교수)는 지난 9월 27일~28일 관악캠퍼스 박물관 강당에서 「동양음악 연구의 역사적·체계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중국 기악곡 형식의 본질적 특징(유안정·광·중앙음악연구소) △자바 가믈란 음악 - 공동연주, 감정 그리고 정신적, 음악적 제휴(수잔 윌튼·미시간대) △한국 음악에 있어서 작곡의 개념(변계원·런던대) △일본 대중음악의 카타(정성훈·켄트대) 등 총 12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또 발표 후에는 「동양음악 연구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도 가졌다.

모교 병원

협력·모자병원 간담회

모교 병원(원장 朴容炫)은 지난 9월 25일 연건캠퍼스 시계탑 제1회의실에서 협력병원 및 모자병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모교 병원과 협력병원 및 모자병원 협약을 체결한 병원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민음사 朴孟浩사장

인문대 기금으로 3억원 쾌척



최근 인문학 서적 전문 출판사인 민음사의 朴孟浩(57년 文理大卒)사장(사진)이 인문학 발전에 써달라며 모교 인문대에 3억원을 기증기로 했다.

朴사장은 올해 1월 「3년 이내에 3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와 함께 모교에 1억원을 쾌척했으며, 나머지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조만간 기증할 예정이라고.

모교 인문대측은 그의 기부금으로 「민음 인문학 저술기금」을 설립, 인문대 교수의 저술 및 연구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불문학을 전공한 朴사장은 재학시절 대학신문과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문학청년 출신으로 책이 좋아 무작정 출판사를 시작했다. 1966년 서울 청진동에서 문학전문 출판사로 출발한 민음사는 「오늘의 시인총서」와 문학계간지

「세계의 문학」 등을 창간하고 「오늘의 작가상」 제정 등을 통해 시인 故 金洙暎씨, 黃芝雨(79년 人文大卒)동문, 소설가 韓水山·朴榮漢·李文烈씨 등 많은 유명 문인을 배출한 바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 한국 단행본출판협의회 대표 운영위원 등을 역임한 朴사장은 부인 韋銀淑(58년 藥大卒)동문과 사이에 祥姬(85년 美大卒)·權燮(87년 社會大卒)·相俊(95년 工大卒)동문 등 2남1녀를 두었다.

음악대학 관악합주 연주회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대학(학장 金 旻)은 부산 지부동창회 후원을 받아 지난 9월 22일, 24일 베르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관악합주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모교 기악과 金泳律(80년 音大卒)교수의 지휘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金麟惠(84년 音大卒)·테너 朴世源(72년 音大卒)·바리톤 金城吉(65년 音大卒)교수를 초청, 부산

(부산문화회관 대강당)과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하이라이트」를 연주했다.

1961년 첫 연주를 시작해 40여 년이 지난 지금, 모교 관악합주단이 보여준 다양한 레퍼토리 완벽하고 훌륭한 연주는 우리 음악계의 신선한 과목을 일으키며 많은 음악인들을 포함한 청중들에게 감탄과 찬사를



한 자리로 이대동대문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제주의료원, 포천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의 병원장과 관계직원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차원장을 비롯해 관리회의 및 간담회 위원 등 간

부진이 전원 참석해 현황과 그동안의 협력병원 및 모자병원 간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향후 의료정보 제공, 기술협력, 시설공조, 위탁교육 등을 제안했다.

(變)

정년(명예)퇴임 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18명이 지난 8월 31일 정년(명예)퇴임을 맞이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允植교수·국문학

59년 師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대문학 비평사와 문학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며, 후학 양성에 기여. 1백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한국현대문학연구의 과학적 기초를 다졌으며, 현장비평활동에도 활발히 참여.



閔丙秀교수·국문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 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 한문학 연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후학 양성에 기여. 한문교육연구회장, 국문학회장, 인문대학 학생담당학장보, 학생처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한시학회장으로 활동.



李相沃교수·영문학

58년 文理大卒. 미뉴욕주립대학 문학박사 학위.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재까지 영미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 재직 기간 중에는 한국영어영문학회장, 한국비교문학회장, 모교 미국학연구소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



安秉直교수·경제학

62년 商大卒. 모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금까지 경제사 및 한국 근대경제사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 현재 한국실학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李將鎬교수·심리학

62년 文理大卒. 미텍사스대학 철학박사 학위. 75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상담심리학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재직 기간 중에는 한국심리학회장, 한국카운슬러협회장, 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



康賢斗교수·언론정보학

61년 文理大卒. 미서던일리노이 대학 언론학박사 학위. KBS와 미국 WGBH-TV 프로듀서로서 방송관련 실무를 쌓았고 한양대,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송이론과 대중문화이론 등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역임.



朴炯錫교수·화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교육과 연구에 힘쓴 공로로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 자연과학대학 분자과학연구소를 설립, 대학발전에 기여.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 산하 화학열역학부분의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익에 공헌.



李潤業교수·화학

58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현재까지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 재직 기간 중에는 대한화학회 간사장,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 우리 나라 화학 발전에 크게 공헌.



李仁圭교수·생명과학

60년 文理大卒. 日훗카이도대학 이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조교수로 임용, 식물계통분류학 특히 조류학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 개척하였으며,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기여. 한국식물학회장, 한국조류학회장, 한국생물과학협회장, 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 등을 역임.



安元榮교수·생물자원과학

59년 農大卒. 미아이다호대학 박사학위.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임산공학의 선구자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임산공학의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임산화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후학 양성에 기여. 한국목재공학회장 및 한국임산에너지학회장 등을 역임.



車京守교수·사회교육

59년 師大卒. 미시라큐스대학 박사학위. 7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사회교육학 강의를 통해서 후학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청소년학회장, 한국사회교육학회장 뿐만 아니라 모교에서 대학신문사 주간, 사회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



尹世哲교수·역사교육

61년 師大卒. 美노스웨스턴대학 박사학위. 7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역사교육과 동양근현대사를 담당하여 학문발전 및 후학 양성에 기여. 문교부 정책자문위원, 역사교육연구회장, 중국현대사학회장 및 모교 교육연구소 비교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



李成千교수·국악

65년 音大卒.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82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창작 활동과 강의를 통하여 국악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 모교 음대 학장, 국립국악원장, 한국국악교육학회장, 한국음악협회 이사, 한국작곡가협회 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



李迎雨교수·의학

60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금까지 순환기내과학 진료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과 한국 의학계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재직 기간 중에는 대한내과학회장, 대한순환기학회장, 모교 병원장 등을 역임.



李載興교수·의학

61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금까지 안과학의 끊임없는 연구와 강의·진료를 통하여 후학 양성과 한국 의학계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재직 기간 중에는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한국망막학회장 등을 역임.



梁源植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미개척 분야인 치과교정학 강의와 연구를 통해 후학 양성과 한국 치과교정학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기여. 치과병원장, 대한치과교정학회장,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장 등을 역임. 현재 치대 동창회장으로 활동.



尹壽漢교수·치의학

61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치과보존학 강의와 연구를 통해 후학 양성과 한국 치과보존학 발전에 크게 기여. 근관치료학의 저서와 주옥같은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모교 치과병원의 보존과장, 대한치과보존학회장 등을 역임.



吳錫泓교수·행정학

59년 法大卒. 美피츠버그대학 박사학위. 6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금까지 행정이론 및 조직, 인사 부문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후학 양성에 진력하였으며, 행정이론 정립과 행정학 발전에 크게 기여. 재직 기간 중에는 모교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등을 역임.

SNUA OPINION LEADER

봉침(蜂鍼) 관련 세계적 권위자인 李長憲(이장헌)교수. 그의 전공분야는 「통증 조절」이다. 1988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유학시절부터 침술을 이용한 통증조절 연구에 매달렸다. 이미 세계적인 의학지인 「페인(Pain)」에 「봉독 약침이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李교수로부터 봉독 치료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통증, 염증, 및 관절의 경직 등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골관절 질환 중의 하나로써 특히 중·장년층의 여성에서 그 발현 빈도가 높으며,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자가면역체계(autoimmune disease)의 이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장년 여성 발생빈도 높아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으로는 관절낭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며, 초기에는 관절낭세포 및 주위의 혈관조직이 증생되고 임파구의 염증성 반응 등이 관여한다. 관절염이 진행하여 만성화됨에 따라 임파구의 침윤이 현저히 증가하며 과사와 결절조직이 형성되면서 중국에는 관절과 골조직 등을 파괴시킨다. 따라서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아스피린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프로스타그란딘 유도체의 생성효소인 COX억제제)와 코티졸과 같은 스테로이드성 약물(염증 세포의 침윤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억제)이 임상에 널리 응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물들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 궤양과 출혈 및 신장독성이 있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인 구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의 경우 장시간 사용시 식욕증가로 인한 비만의 초래, 쿠싱신드롬(Cushing syndrome), 고혈압, 당뇨, 백내장, 및 골다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널리 주지된 사실이다.

최근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관절염치료 약물들의 개발이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선택적인 COX-2 억제제와 같은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 곧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시간 투여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탁월한 소염 및 진통효과를 가진 치료제 및 치료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간과 꿀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아마 석기시대 중반인 약 BC 7천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과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4천년 전부터 양봉이 시작되었으며, 양봉의 산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약 3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벌꿀을 약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집트 의학을 기록한 에바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한 蜂毒의 효과

의 파피루스 고문서에서도 벌꿀과 밀납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이미 꿀과 밀납을 의약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독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수천년 전부터 하나의 민방요법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에서 신경통, 관절염에 특효라고 알려진 봉침요법(살아있는 벌에 직접 쏘임으로써 치료효과를 보는 치료법)은 서양의학에서는 기원전 2천년경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바빌로니아 의서에 이미 봉독이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봉독을 「Arcanum」 즉 대단히 신비한 약이라 소개하고 있다.

봉침요법에 대한 한의학적인 최초 문헌기록은 1973년 중국 장사 마왕퇴 3호 한묘에서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1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서(帛書)에 봉침요법 적용 예가 실려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봉독을 채취해 적절한 가공과정을 거쳐 피부를 통해 투여했는데 「양생방」에서는 봉독으로 처리한 닭의 근육을 대추기름에 개어 형질에 발라 두었다가 그 형질을 피부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투여했고, 「잡료방」에서는 봉독으로 처리한 개의 간(肝)을 식초를 용매로 사용하여 추출해 솜에 적셔 두었다가 그 솜을 피부에 대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봉독은 일반적으로 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나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독을 독낭에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독액은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조되며, 열에 매우 안정되어 있어 끓여도 그 특성을 쉽게 잃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봉독은 또한 산화성 물질에 의해 쉽게 파괴되며, 특히 알코올은 빠른 시간 내에 불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봉독의 추출법은 생벌을 개체별로 잡아 독낭을 쥐어짜 추출하는 방법인 채집법과 마취전 꿀벌은 생리적으로 일정량의 봉독을 분비하는데 이것을 모아 채취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채취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취방법으로는 순수한 봉독만을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기 추출법으로 봉독 채취

최근에 들어서는 고주파 전기자극으로 벌을 흥분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앓은 나이론이나 고무필름에 봉독을 분비하게 하는 방법인 전기 추출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벌의 침이 상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채집이 가능하며, 높은 순도의 봉독을 대량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봉독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주요성분으로는 펩티드, 아파민, 및 아돌라핀과 같은 단백질과 효소성분, 히스타민 및 도파민과 같은 생

리 활성아민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한의학에서는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재래치료법인 봉침요법을 봉독의 생화화적인 약성 및 인체의 기혈 순행 노선인 경락학설을 결합하여 침치료점인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단순한 봉독요법보다 치료효과를 한단계 개선시킨 봉독약침(순수 봉독만을 추출하여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봉독약침의 한방적인 치료기전은 일반적인 침의 효과와 더불어 봉독의 생화화적인 약성의 자극으로 인한 치료 부위에 가벼운 열감을 일으켜 뜸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소염 및 진통효과 입증돼

최근 임상에서 이러한 봉독약침요법을 요통, 슬관절통 및 견관절통 등과 같은 통증질환의 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환자에 따른 과민반응과 알러지 반응으로 인하여 소수의 의료인만이 임상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봉독약침이 임상에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봉독약침이 가지는 소염 및 진통효능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효능과 관련된 기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봉독이 가지는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선결과제이다.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는 사람에서 다발하는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병성 및 유발기전이 유사한 다발성관절염을 실험동물로 이용하여 유발시킨 후, 봉독이 가지는 소염 및 진통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국제통증학회가 발행하는 의학지인 「페인(Pain)」 최신호에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서 봉독은 관절염시 통증을 전달하는 척수 내 관련 신경세포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진통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는 체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소염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페인誌가 통증관련 최고 권위의 잡지인 만큼 우리 나라 고유 봉독약침요법의 치료효능을 국제의학계에서도 처음으로 입증 받은 셈이다. 또한 실험동물의 족삼리에 해당하는 혈자리와 살이 많은 등이나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 한 결과, 혈자리에 주사했을 때 10배 가까이 효과가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실험적 입증은 경락의 존재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봉독이 나타내는 소염 효능 및 진통효능과 관련된 기전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이며, 2001년도에만도 이미 3편 이상이 국제학술지에 소개되었다. 따라서 봉독이 가지는 소염 및 진통효과에 대해서는 수차례 국제학술지에 논문발표를 통해 과학적 입증이 끝났으며, 앞으로 면역과 관련된 소염 효과가 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암이나 에이즈치료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봉독의 여러 성분 중 특정질환에 유효한 특이성분만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봉독이 나타내는 부작용의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과는 배가된 봉독약침액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미 일부는 특허출원 중에 있다. 앞으로 봉독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재를 추출해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봉침요법과 봉독약침의 차이

그러나 「봉독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봉독은 말 그대로 독(毒)인 만큼 심장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쇼크도 일으킬 수 있으며, 용혈작용도 있어 신장병 환자나 뇌혈관질환, 결핵,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사전 반응검사를 거친 뒤에 시술받아야 한다. 특히 살아있는 벌을 몸에 쏘이는 봉침요법과 봉독약침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봉독약침의 경우 봉독의 성분과 양을 표준화시켜 적정 용량의 투여가 가능하지만, 봉침요법의 경우 계절이나 벌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봉독의 성분과 양이 매번 달라 봉독의 용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국내의 동서양 의학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의 나쁜 모습만을 바라보고 헐뜯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듯이 「생명현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진심어린 충고와 애정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문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수천년간 경험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된 한 의학을 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한국이 충분히 21세기 의학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봉독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 중 아주 미약한 것 중 하나이며, 시작에 불과하다.



李長憲

- 1986년 모교 수덕대 수의학과 졸업
- 1988년 대학원 졸업 (석사학위)
- 美 미네소타주립대 졸업 (박사학위)
- 1993년 美 국립보건원(NIH) Alternative Medicine 연구비 심사위원
- 1994년 Southern Medical Journal 학술위원
- 모교 수덕대 생리학교실 교수

서울대 人名錄(假題) 및 CD-ROM TITLE 발간을 시작합니다



서울대인의 인명록 제작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간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서울대인의 정체성을 묶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간에 조그마한 힘이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 인명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조류에 맞춰 회원명부와 더불어 각계의 『직업·직장별 명부』와 『CD-ROM TITLE』을
함께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서울대 인명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 발행일 : 2002년 6월경 ■ 자료마감 : 2002년 3월 30일

■ 내 용 : 회원명부, 직업·직장별 명부, CD-ROM TITLE

■ 회원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절 취 선

◆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2002년 인명록에 기록될 본인 및 주위에 알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아래양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서 우편, 팩스 또는 E-mail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성명			한자성명			영문성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단과대학		학 과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업 및 업종군		E-mail				핸 드 폰		
자택주소						자택전화		
주 요 약 · 경력								

◆ 단위별 동문회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별 동문회(단과대학별, 학과별, 입학년도별, 직장별, 지부별 등)에서는 단체의 임원진 및
동문님들의 현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작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남을 존중하는 마음의 여유까지 지닌다면...

申慧媛 : 崔敬鎮(74년 醫大卒·신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동문 부인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교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보고 자란 나는 꼭 서울대인이 되어보리라 다짐을 했었다. 비록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항상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어 대학생활 중 서울대생만 보면 가슴이 설레었고, 열심히 노력해 서울대란 꽃을 피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멋있어 보였다. 딸의 이런 설렘을 눈치채셨는지 어린 나이(이화여대 의대 본과 2년)에 첫 선을 보게 되었는데, 검은 제복(당시 남편은 해군 군의관 근무 중이었다)의 아저씨가 나타났고, 이후 서울대인의 자신감, 편안함과 배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순수함 등에 끌려 설렘을 현실화하기로 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내 아이를 보더라도 서울대인이 되어 여러 면에서 변하는 것 같다. 주위로부터 받는 대우와 기대도 달라지지만 성격도 습관도 달라짐을 보게 된다. 나의 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몹시 느긋하여(여유와 게으름으로 자각에 일가견이 있다) 남편이 「비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

다.

나약해 보이던 「비실이」가 열심히 공부하여 관악의 문턱을 넘은 후 우리 부부는 아들의 대학 생활을 걱정반, 기대반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서울대인이 된 후 아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일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남편이 대학시절 사랑하던 연극반에 아들도 들어갔는데, 남편은 캐스트만으로 만족했으나 아들은 캐스트와 연출까지 욕심을 내며 생전 안 읽던 희곡도 열심히 찾아 읽고, 연극 하나를 몇 번씩이나 보며 한가지 일에 열심히 파고드는 서울대인의 집념을 보여주어 역시 서울대인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제는 「비실이」라는 별명을 떼어버리고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들은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레지던트를 교육할 때의 엄격함을 존경하며 환자를 대할 때의 따뜻한 눈과 마음을 닦고 싶어한다. 복잡한 대학로의 인파 속에서도 우리 교수님의 모

습은 뭔가 다르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닦으려 노력하는 아들의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후배 등 서울대 출신 여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특히 서울대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내가 본 그들은 한결같이 학업의 성취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정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조언을 하고, 불혹에서 자유롭기에 다른 이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 같다.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관대하고, 자녀에게는 자상한 어머니이고 남편에게는 명석하고 따스한 조언을 해주는 아내이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는데도 게으리 하지 않아 역시 서울대인은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혜로움

까지 갖추어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리더로 자질을 발휘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명석함과 뚜렷한 주관을 보여주는 것을 보며 언제나 그들을 닦고 싶다고 느낀다. 최고의 지성과 인간미 넘치는 내적 성숙함을 갖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남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면서 마음의 여유까지 있다면 그 서울대인은 모든 여자와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 같다.

서울대인이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의 발전 없이 과거 학창시절의 달콤한 추억에만 잠겨 사는 서울대인도 간혹 있다. 오히려 서울대에 가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더욱 열심히 함으로써 인간의 폭도 넓어지고 더 소중한 것들을 성취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진정한 서울대 정신을 가진 매력 넘치는 서울대인들이 수많은 꽃을 피워 향기로운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본다.

박 성 희
문화상책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는 표정을 짓더군요.

별 것 아닙니다. 여자에게 지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땐 보나마나 남동생을 보라는 뜻이었을 테니까 언니가 있는 게 틀림없고 그런 식으로라도 아들을 원한 건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정도는 사실 상식에 가까운 겁니다.

두 번째 화가의 경우엔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달리 그림의 붓질이 상당히 거칠고 사납길래 아마도 개인적으로 폭발시키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 생각한 건데 맞은 겁니다. 언니와 남동생 사이에 있는, 자아가 강한 둘째 딸의 특성이 그림에 보였던 거지요. 나중에 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침대와 책상의 위치나 방향을 바꾸고 침대 밑에 동판도 깔니다. 풍수를 꼭 믿어서라기보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좋은 게 좋다」에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 가끔 이런 설들이 「정말 얼마나 맞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 예를 알고 있습니다. 작고하신 鄭周永 회장께서 30여 년 동안 살던 청운동 집에서 가회동으로 이사할 때 이른바 풍수설에 의거, 갑작스레 이사할 집을 고르고 이사 날짜는 물론 들어가는 시간까지 지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치하는 사람들(전 「정치가」라는 말을 쓰기 싫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 정치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지요)에겐 나쁘다는 건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평창동은 지리적으로 산동네인 만큼 조용하고 풍광은 좋지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은 물론 없고 버스도 노선이 적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엉망인 거지요. 그렇다고 주차하기가 관찮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용한 가운데 혼자 작업하는 예술가들에겐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일반인의 왕래가 잦아야 하는 정치관 사람들에겐 불리하겠지요. 산동네인 만큼 집의 덩치가 커보이고 따라서 일반인의 거부감을 자아내기 쉬운 것도 좋지 않은 요소가 아니겠는지요. 풍수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뭐랄지 모르겠습니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주나 공합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입시철이면 자녀의 합격여부를 알아보려는 엄마들, 결혼시즌이면 공합을 보려는 어머니들과 젊은 당사자들로 점집이 초만원이 이롭니다. 유명하다는 역학인들에겐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요란스럽게 사주와 공합을 본 끝에 결혼한 부부가 1년을 못 채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공합이 나쁘다고 하자 미리 점쟁이에게 물어 공합이 좋은 날로 여자 쪽의 생년월일을 속여 결혼했는데도 30년 동안 잘 사는 부부도 근처에 있구요.

신문의 「오늘의 운세」가 나쁘면 팬스레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져 급기야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 경험도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정도는 모르지만 사주나 공합, 풍수에 너무 기대는 것, 그거야말로 자신의 운명이나 복을 쓸데없는 틀에 가두는 것 아닐까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 주 & 공 합 & 풍 수 인테리어

사주와 공합을 믿으시는지요. 「오늘의 운세」는 꼬박 챙겨 보시는지요. 연말연초엔 토정비결도 때보고 인터넷 점도 가끔 치시는지요. 얼마나 맞던가요. 대개 좋은 일보다는 궂은 일 쪽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 다만.

저는 『광화문에 돛자리를 펴는 게 낫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름 또는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의 신상을 잘 맞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카가 여자친구를 보여주겠다(?)며 처음 데리고 왔을 때였지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더군요. 그런데 이름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둘째딸이나, 남동생이 있느냐, 집에 할머니가 계시냐』 물론 모두 맞았지요. 깜짝 놀라더군요.

또 한번은 집안 좋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시원스레 생긴 여성화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역시 『언니와 남동생이 있느냐』니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얼굴 본 지 30분도 안돼 맞췄더니 어이없

고 보니 이 화가도 잘생겼는데 언니가 워낙 미인인 것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요인이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생각하는 속도로 변한다는 요즘도 사주, 공합, 작명, 풍수 등은 여전히 그 세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줄기는커녕 어쩌면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엔 스포츠지에서만 신던 「오늘의 운세」를 신문마다 다루고,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점집촌이 생기는 걸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하기 때문일까요. 확실한 게 아무 것도 없어서일까요. 사주나 공합을 보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요즘엔 「풍수 인테리어」까지 대유행입니다. 침실은 어떻게 꾸미는 게 좋고, 사무실 책상은 어느 방향으로 놓는 게 좋고, 집안을 통과하는 수맥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유명 가구회사나 인테리어회사에서는 「풍수 인테리어 강좌」도 엽니다.

워낙 급하게 이뤄진 일이라 집을 팔고 이사가는 사람이 경황 없어한 건 물론 촉박한 입주날짜에 맞춰 집을 고치느라 밤을 새워 집수리를 하는 등 난리를 쳤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시간을 맞추느라 집 앞까지 오셨다가 다시 근처를 한 바퀴 돌기까지 했다는군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鄭 회장께서 가회동 집으로 이사하신 뒤 신통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청운동으로 되돌아 가셨었지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에선 수맥을 막는다고 어느 날 임원실의 책상 위치를 모두 바꿨는데 정말이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책상 방향을 바꾼 지 1년여 만에 임원진 전체가 사퇴했습니다.

얼마 전엔 정치계 인물들이 서울 종로구 세검정 일대(평창동 구기동)를 떠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풍수상 정치하는 사람들에게겐 좋지 않아서라는 거지요.

글쎄요. 평창동이 예술가들에겐 좋고 정

치과대학

제4회 친목 골프대회 개최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梁源植)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소재 기흥CC에서 동문 1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5시부터 티 오프를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 평일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이 참석, 선후배 및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일반부는 A, B조로 나뉘었으며, 특별히 원로 선배들을 위한 시니어부, 여성 동문들을 위한 여자부 부문을 추가했다. 또한 동문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별 단체전 및 시니어부 단체전을 아울러 가졌다.

이날 A조 우승은 朴勝五동문, B조 우승은 정정수동문이

차지했으며, 시니어부 및 여자부에서는 閔丙一·金潤伊동문이 각각 1위를 했다. 또한 A조 李元均동문이, B조 李載鶴동문이 각각 메달리스트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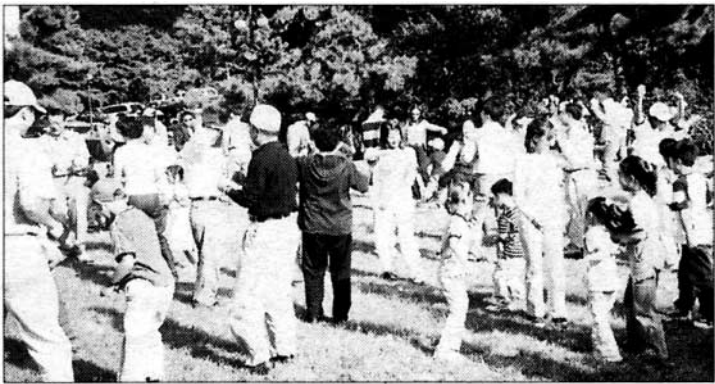
한편 기별 대항전에서는 31회 졸업생 姜泰聲·金載英·孫在雲·崔珠容동문 조가, 시니어부에서는 19회 졸업생 李鍾律·全勳植동문 조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2, 3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별 단체상 2위 : 34회 姜昌權·李元均·全祥元·鄭炯泰동문. 3위 : 38회 權純萬·安鍾耕·李相健·曹基英동문.

시니어부 단체상 2위 : 13회 許政國·玄天燮동문. 3위 : 15회 金光善·尹壽漢동문.

전기동문회

모교 방문의 날 행사 가져



전기동문회(회장 金世鍾)는 지난 9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한국코트렐 李達雨(본회 부회장)회장, J&L 田載豐대표, 한국남부발전 李林澤대표, 모교 韓民九교수 등 동문 및 동문 가족 2백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0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岡昱(85년卒)동문에게 박사학위패를 수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교 공학관

및 엔지니어하우스를 견학한 후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만끽하며 자운암을 등반했다. 또한 보물찾기, 놀이마당 등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아울러 가졌다.

수원지부 골프동호회
이틀 간의 골프 모임

수원지부동창회 골프동호회(회장 邊尙鉉)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휘닉스파크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12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 간의 모임은 골프동호회 동문들의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지부 관악산우회
경주 남산 금오봉 산행

부산지부동창회 관악산우회(회장 金永泰)는 지난 9월 16일 경주 남산 금오봉에서 「제16차 관악산우회」 등반행사를 가졌다.

60여 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등반대회에서 동문들은 상호간의 우의와 정을 더욱 돈독히 했으며, 산행을 통해 경주 남산 금오봉에 가을이 오는 풍경을 만끽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법대 11회

간담회로 우의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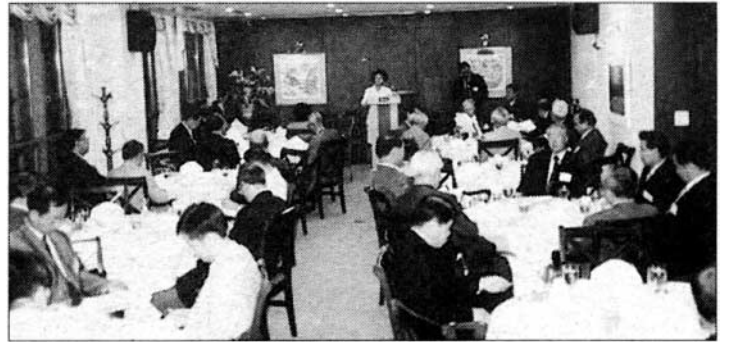
법대11동기회(회장 李大淳)는 지난 9월 11일 강남 소재 팔레스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정기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7~8월 휴가로 인해 모임을 개최하지 못했던 관계로 이날 만난 동문들은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서로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李英秀변호사, 세계인재개발원 李徽永회장, 李貴昊 前 Korea Xerox사장 등이 참석했다.

의과대학

합춘대상·의학상 후보추천 논의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9월 21일 모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기든뷰에서 모교 朴容昰병원장, 모교 李鍾郁학장, 韓成九교수, 동창회 金鍾信·朴嬈實·朴熙伯·沈英輔부회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장 및 동기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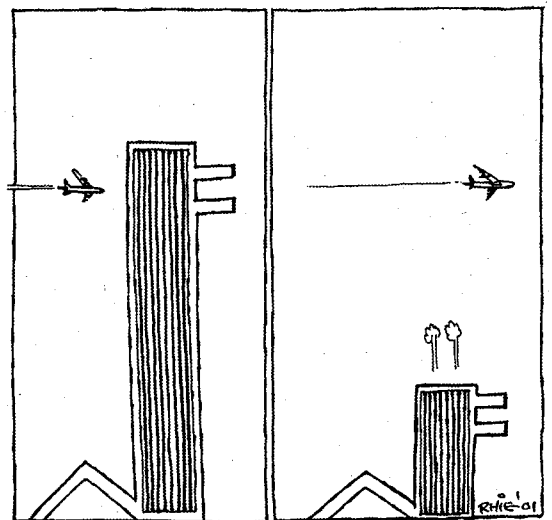
2001년도 회무 보고에 이어 이날 참석한 각 동기회장 및 지회장(지역, 의대 및 종합병원지

회)에게 제3회 합춘대상 및 1천만 원의 학술연구비가 지원되는 제5회 합춘의학상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본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합춘회관 건립 추진 및 기금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동창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만평

李元馥



오만하면 당한다. 겸손한 서울대인이 됩시다.

수의과대학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 전달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9월 7일 모교 수원 캠퍼스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모교 李興植학장, 李文漢부학장, 朴奉均기획실장, 동창회 장학재단 金善中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李회장은 모교 金소현(박사 1년)양, 은민영(본과 1년)·박재현(학부 4

년)군에게 등록금 전액인 7백 88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설립된 동창회 장학재단은 올해까지 총 31명의 재학생에게 6천4백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더 많은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모금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모교 鄭雲燦교수 특강 들어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鍾)는 지난 9월 21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3/4분기 조찬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鄭雲燦(70년 商大卒)교수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金泳三 前대통령 시절, 한국은행 총재직을 고사했던 鄭雲燦교수는 지난 8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적자사실을 최초로 경고하는 등 국내 경제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한 예지력을

지닌 경제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 鄭교수는 국내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그래프와 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 재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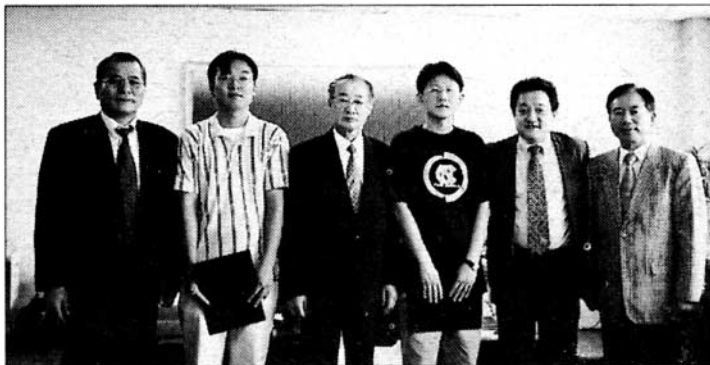
산업공학과

10월 27일 모교 방문

산업공학과(회장 金城仲)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5시 모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7180)

경영대학원

朴應軫·曹勝鉉군 장학금 받아



좌로부터 朴建豪부회장·曹勝鉉·禹희장·朴應軫·趙東成학장.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9월 8일 모교 경영대학원 학장실에서 2001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趙東成학

장, 朴建豪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禹회장이 지난 1학기에 이어 朴應軫·曹勝鉉(석사 1년)군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간호대학

10월 20일 야유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9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401호에서 전체이사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각 기별 회장단 임원들도 참석해 10월에 가질 야유회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야유회는 10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날 야유회를 통해 꾸집한 오찬, 각 기별 소개 및 장기자랑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야유회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李愛珠 부회장, 李仁淑상임이사, 金錦順·趙貞淑총무이사 등이 9월말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프로그램 구성, 홍보 기획 등의 제반사항을 전담하기로 했다.

상과대학

「올해의 교수상」 논의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9월 19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올해의 교수상」 선정을 비밀투표로 진행해 오는 12월 4일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또한 특지장학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여 동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와 더불어 동창회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는 정기총회 때 배포될 동창회보 「向上的 塔」 제85호에 많은 동문들의 글이 게재되도록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2002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2002년 壬午年の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사회학과 15회

제주대 연수원서 토론회 열어



사회학과15동기회(회장 徐炳浩)는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金基相·金俊吉·邊海龍·安啓春·安秉珪·林采郁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대 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이번 여행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申幸澈(제주대 교수)·梁容和(제주지부동창회 부회장)동문 초청에 의해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친 邊時敏 교수내외도 현지인으로 참석, 사제간 정을 더욱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주대 연수원에서 집을 풀고, 이틀간 「노년생활」 및 「제주의 역사지리」 등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건축학과

도서기금 및 장학기금 전달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洪性夫)는 지난 9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건축학과 전시실에서 제30회 흙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洪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동창회의 발전과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애써주신 30회 졸업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도서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동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1부 순서로 그 동안 자주 뵈지 못했던 모교 은사들과

서로 지나간 학창시절을 회고하는 등의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후학들을 위해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모교 교수들에게 동창회가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모교 金光禹학과장에게 李丞基(삼능건설 대표)동문이 1백만원의 도서기금을, 金濟永(행진개발 대표)동문이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창회에서 30동기회 동문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케이프 절단식에 이어 참석자

들은 30동기회 동문들의 학창시절이 담긴 영상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여흥시간에는 동문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나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30회 姜連道·郭景·金誠洵·金成完·金英徹·金勇哲·金濟英·金鍾英·金鍾寅·金周燮·裴是花·孫明基·宋顏燮·申載億·李光泰·李聞秀·李相春·李靈根·李鍾晚·李喆弘·林明雄·張基成·張永培·全成熙·鄭燮·趙喆柱·許慶동문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공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2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2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 根

체육교육과

장학금 전달식 가져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李康法)는 지난 9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모교 교수 및 재학생,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2학기 대면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모교 全泰源·鄭清喜교수, 동창회 權潤芳·林繁藏부회장, 김상민·백성수 간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유상호·조민기(3학년)군에게 「체우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특별히 모교와 동창회 간 친목도모를 위해 교수 및 재학생들을 소개하는 등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모임을 통해 올해 흙커밍데이 행사를 10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및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동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表〉

동정

수상

▲康明順(46년) 京城大卒·한양대 명예교수=지난 10월 1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수여하는 제15회 仁村賞(산업기술부문)을 수상함.

▲金完鎭(54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9월 21일 서울YMCA 지관방에서 동송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동송학술상을 수상함.

▲李承旭(55년) 文理大卒·서강대 명예교수=지난 9월 21일 서울YMCA 지관방에서 동송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동송학술상을 수상함.

▲嚴圭白(56년) 文理大卒·양정고교 교장=지난 10월 1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수여하는 제15회 仁村賞(교육부문)을 수상함.

▲金瓊元(54년) 法大入·사회과학원장=지난 9월 28일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2001년 뱀플리트상」을 수상함.

▲李禹煥(56년) 美大入·서양화가=오는 10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제13회 「세계문화상(회화부문)」을 수상한다.

▲南豐鉉(60년) 文理大卒·단국대 명예교수=지난 9월 21일 서울YMCA 지관방에서 동송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동송학술상 시상식에서 동송학술연구상을 수상함.

▲孫政雄(71년) 文理大卒·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기획과장=지난 9월 25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고운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고운문화상(창의부문)을 수상함.

▲李秉基(74년) 工大卒·모교 연구처장=지난 9월 17일 대한민국의학원에서 제46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朴聖會(75년) 醫大卒·모교 병리학교실 교수=지난 9월 17일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제46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함.

▲柳濟萬(79년) 藥大卒·동화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지난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10회 다산기술상 대상을 수상함.

▲柳誠彥(84년) 自然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소위치단백질구조연구단장=지난 9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 우수 과학자상」을 받음. 또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함.

▲申載弘(84년) 師大卒·경원대 교수=지난 9월 21일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고전문화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6회 「성산학술상」을 받음.

▲趙楡顯(88년) 自然大卒·90년 社會大卒·월간 서울스코프 발행인=지난 9월 19일 책자로 보는 서울展(SeeSEOUL2001)에서 「좋은 서울홍보 책자상」을 받음.

이동·선임

▲李祥根(57년) 商大卒·대일제무자문 회장=최근 한국금융신문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함.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의대 길병원 이사장·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會長=최근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 의장에 임명됨.

▲金 惠(58년) 法大卒·前 통일부총리=최근 성균관대 석좌교수에 위촉돼 2학기부터 대학원에서 「남북한 관계론」을 강의함.

▲朴椿浩(59년) 文理大卒·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지난 9월부터 부경대 석좌교수에 위촉돼 해양관할권론·해양분쟁 해결론 등을 강의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 서울산업대 총장·오성연구소 이사장=최근 서경대 석좌교수에 위촉돼 2학기부터 「선비정신과 21세기 리더십」을 강의함.

▲金容俊(59년) 法大卒·前 헌법재판소장=지난 9월 1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참사랑 운동본부」 창립대회에서 명예총재에 위촉됨.

▲李廷彬(60년) 法大卒·前 외교통상부 장관=최근 재경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장에 선임됨.

▲李相周(60년) 師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지난 9월 10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됨.

▲金基容(60년) 醫大卒·강릉병원장=지난 9월 1일 인제대 의과대학 학장에 선임됨.

▲林東源(61년) 文理大卒·통일부 장관=지난 9월 11일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장관급)에 임명됨.

▲洪淳瑛(61년) 法大卒·駐중국대사=지난 9월 7일 통일부장관에 임명됨.

▲金德昌(63년) 文理大卒·前 내외통신 사장·홍익대 초빙교수=지난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함.

▲朴鍾憲(63년) 法大卒·前 삼양제넥스 사장=지난 8월 30일 (주)삼양사 주종에서 사업부문 총괄사장에 선임됨.

▲林寅澤(63년) 法大卒·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지난 9월 30일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됨.

▲韓光玉(60년) 文理大入·대통령 비서실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10일 새천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에 임명됨.

▲文明浩(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지난 9월부터 세종대 겸임교수로 임명돼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함.

▲尹 埴(64년) 文理大卒·경원대 강사=최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원장에 취임함. (연락처 : 053-749-5000)

▲朴楊千(65년) 文理大卒·前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지난 9월 5일 駐벨기에 대사에 임명됨.

▲李在祥(65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9월 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9대 원장에 선임됨.

▲崔圭鶴(65년) 行大院卒·前 대통령 복지노동부수석비서관=지난 8월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제9대 원장에 임명됨.

편집주간석

HOME COMING DAY 겸 등산대회에 나섭시다!

10월 15일은 모교 개교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일요일은 1년에 한번이라도 모교를 찾아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단풍이 물든 관악산을 등반하는 날입니다.

짜증과 고통, 실망과 아픔이 클수록 이들을 가을 하늘에 날려 버리고,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십시오.

모교의 넉넉한 품에 청명한 하루를 맡기십시오.

학창시절의 추억과 열정, 그리고 건강까지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鄭泰翼(65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장=지난 9월 11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임명됨.

▲金東泰(66년) 農大卒·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지난 9월 7일 농림부 장관에 임명됨.

▲朴泰榮(66년) 商大卒·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7차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이사에 선출됨.

▲李祥義(66년) 藥大卒·국회의원=지난 9월 1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선진흥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됨.

▲金鶴在(67년) 法大卒·법무부 차관=지난 9월 11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됨.

▲朴紀正(68년) 文理大卒·동아문화센터 사장=최근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교수로 위촉돼 「신문편집의 현대와 미래」를 강의함.

▲李淳學(68년) 商大卒·前 한솔창투 사장=최근 뮤추얼펀드 평가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에이브레인」 회장에 취임함.

▲金相祐(68년) 醫大卒·서울백병원 부원장=지난 9월 1일 상계백병원 원장에 선임됨.

▲卞增男(69년) 工大卒·한국과

학기술원 교수=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퍼지학회(IFSA) 이사회에서 국내 학자로는 최초로 회장에 선출됨.

▲金夏中(69년) 文理大卒·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지난 10월 4일 駐중국 대사에 임명됨.

▲崔 鑄(69년) 醫大卒·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소아신장학회에서 임기 6년의 카운슬러에 선임됨.

▲吳生根(70년) 文理大卒·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최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회에 위촉됨.

▲柳明桓(70년) 法大卒·前 주미공사=지난 9월 3일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에 임명됨.

▲李慶衡(70년) 文理大卒·대한매일신보 수석논설위원·本報論說委員=지난 9월 27일 대한매일신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됨.

▲李珍根(70년) 齒大卒·부치과 의원장=지난 9월 8일 잠실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어린이를 위한 봉사단체인 국제키와니스(KIWANIS) 한국지부 총재에 취임함.

▲全孝澤(71년) 工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최근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평의원회에서 2001년도 회장에 선출됨.

▲安載憲(71년) 文理大卒·행자

(25면에 계속)

(24면에 이어)



부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장)=지난 9월 20일 행정자치부 제 2의견국법국민 추진위원회 기

획운영실장에 임명됨.

▲嚴廷植(71년 新大院卒·서강대 교수)=최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에 위촉됨.

▲鄭德興(72년 法大卒·前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30일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에 선임됨.

▲金智日(73년 文理大卒·MBC 드라마국 위원)=지난 9월 22일 MBC 편성국장에 선임됨.

▲金宅坤(73년 文理大卒·MBC 홍보심의국장)=지난 9월 22일 MBC 보도국장에 선임됨.

▲玄旼錫(74년 商大卒·前세무대학장)=지난 9월 8일 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에 위촉됨.

▲慎鍾寅(75년 師大卒·MBC 예능국장)=지난 9월 22일 MBC TV제작2국장에 선임됨.

▲吳日鎬(75년 商大卒·동양제과 영업본부장)=지난 9월 23일 오리온프리토리 사장에 선임됨.

▲李鍾范(76년 工大卒·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감사실장)=최근 출범한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초대 사무총장에 선임됨.

▲柳宣浩(76년 法大卒·경기도정무부지사)=지난 9월 11일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됨.

▲鄭壽夫(77년 行大院卒·법제처장)=지난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됨.

▲尹承鎮(79년 經營大卒·MBN 해설위원)=지난 9월 4일 매일경제TV(MBN) 보도국 차장 겸 증권부장에 선임됨.

▲趙培淑(79년 法大卒·민주당 당무위원)=지난 9월 7일 민주당 전국구 柳三男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입각하게 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승계함.

▲李鍾潤(79년 大學院卒·한솔금고 전무)=최근 한솔창투 대표이사에 선임됨.

▲姜榮哲(80년 社會大卒·매일경제신문 지식부장)=지난 9월 4일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겸 세계지식포럼 사무국장에 선임

됨.
▲禹建助(81년 農大卒·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장)=최근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조직한 GMO(유전자변형식품) 식품전문자문위원회 위원에 선정됨.

▲曹永達(83년 師大卒·모교 사회교육과 교수)=지난 9월 11일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임명됨.

▲李石淵(91년 大學院卒·경실련 사무총장)=지난 9월부터 동국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임명돼 형사소송법을 강의함.

▲柳三男(24기 AMP·국회의원)=지난 9월 7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됨.

▲金泰完(44기 ACAD·민족통일불교협의회 의장)=지난 9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종교분과위원회 간사에 임명됨.

▲曹建昌(49기 ACAD·前고속도로관리공단 이사장)=최근 한국도로교통협회 상근 부회장에 취임함.

행사·출간

▲宋仁相(35년 京城高商卒·한국능률협회장)=지난 9월 20일 하얏트호텔에서 申英均(68년 商大卒) 前대우조선공업 사장 등을 초청, 제338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李潤子(46년 京城女子師範卒·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지난 8월 3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함.

▲金相廈(49년 文理大卒·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이사장·本會顧問)=지난 9월 26일 서울 여전도회관 2층 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회를 가짐.

▲文太俊(50년 醫大卒·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지난 9월 4~7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인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충북장학회 이사장·本會 首席副會長)=지난 9월 15일 세종호텔 은하수홀에서 충북 출신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함.

▲李榮德(52년 師大卒·사학운리위원장)=지난 9월 19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 자체평가제 도입 특별연구회」를 가짐.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사회포럼 회장)=지난 9월 20일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서강대 李相禹(61년 法大卒·本會 副會長)교수를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4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盧信永(54년 法大卒·롯데장학재단 이사장)=지난 8월 29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총 4백12명에게 2학기 장학금 5억 4천8백만원을 전달함.

▲柳泰容(55년 工大卒·한국방재협회장)=지난 9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도시홍수 재해의 경감대책」이라는 주제로 제1회 재해관리기술세미나를 가짐.

▲朴奉植(55년 文理大卒·前모교 총장·한국선진화연구회장)=지난 9월 1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柳鍾根전북지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 선진화의 길」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짐.

▲權純亨(55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한국현대예가회장)=지난 9월 21~30일 예술의전당 제2전시실에서 제13회 한국현대예가회전을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우덕 고문·美大同窓會會長)=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갤러리우덕에서 「한·일 현대작가 6인의 Illusion」전을 개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12일 하얏트호텔 릴리움에서 보건복지부 金元吉(68년 商大卒)장관을 초청,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안착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

「서울튜티앙상블」 25회 연주회

李玉姬·李昌洙동문 등 6명 출연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姜昌佑동문, 한명 건너 李昌洙동문, 두명 건너 皮虎英동문, 李美宣·李玉姬·金貞賢동문.

지난 10월 1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李玉姬(64년 音大卒·피아니스트)동문을 리더로한 「서울튜티앙상블」이 제2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클라리넷 李昌洙(71년 音大卒·코리안심포니 수석), 바이올린 皮虎英(83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金貞賢(84년 音大入·원주시향 객원악장), 비올라 姜昌佑(83년 音大卒·올라비올라 플루트 李美宣(86년 音大卒·코리안심포니 수석)동

문 등이 함께 참여해 라이네케의 「오보에, 호른, 피아노를 위한 3중주」, 하차투리안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명곡들을 들려주었다.

열악한 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주회를 개최해 오으로써 실내악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몫을 해내고 있는 「서울튜티앙상블」. 이날 선보인 감동적인 연주로 명실공히 국내 최정상급의 실내악단임을 과시했다.

회를 가짐.

▲張在植(56년 法大卒·산업자원부 장관)=지난 9월 13일 모교 엔지니어 하우스에서 열린 「CEO 환경경영포럼」에 참석, 「친환경산업정책과 청정생산」을 주제로 강연함.

▲閔丙陵(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10일 충북대 경영대학원에서 「환경변화와 기업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함.

▲崔泳一(56년 獸醫大卒·색동회 회장)=지난 9월 17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아동문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故 눈술정인섭 박사를 기려 제정한 제 17회 눈술어린이 문화대상 시상식을 가짐.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한국협회장)=지난 9월 17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유엔 가입 10주년 기념 만찬회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명예교수)=지난 9월 14일 경원대 인문대 계단강의실에서 「대학과 사회봉사」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함. 또 21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정치윤리와 정치행태」라는 주제로 제1회 윤리포럼을 개최함.

▲李世中(57년 法大卒·변호사·광화문문화포럼 회장)=지난 9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연세대 宋復

(60년 文理大卒)교수를 초청,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16회 아침공론을 개최함.

▲李徽永(57년 法大卒·LG화재고문·세계인재개발원장)=지난 9월 14일 롯데호텔 벨류룸에서 「한국기업의 현황과 활로」를 주제로 최고경영자 모임을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가천문화재단 이사장·가천의대 길병원 이사장·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會長)=지난 9월 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인천국악대전제 - 전국국

(26면에 계속)

(25면에 이어)

악경연대회」를 주최함. 또 지난 5~8월 신생아 1명당 1만원씩 적립한 여성기금 6백여 만원을 한국여성재단에 전달함.

▲崔鍾玉(58년 師大卒·사랑의 친구들 총재) =지난 9월 15~16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과 노천극장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행사를 가짐.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지난 9월 27, 28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제3차 한·러 포럼을 개최함.

▲鄭根謨(59년 文理大卒·호서대 총장) =지난 9월 26일 국방회관에서 열린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세미나에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함.

▲韓萬青(59년 醫大卒·산학연 정책과정 원장) =지난 9월 13일 기획예산처 田允喆(65년 法大卒)장관을 초청, 「우리 경제 및 재정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



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 =지난 9월 14일 팔레스호텔에서 「친환경 단미·

보조사료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가짐.

▲南正鉉(61년 工大卒·대우엔지니어링 회장·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지난 9월 1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인천공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사회교육과 교수·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지난 9월 20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법 개정 방향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愼鏞廈(61년 文理大卒·모교사회학과 교수·독도연구보전협회장) =지난 9월 2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독도영

유권과 한·일 어업협정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李康淑(61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안익태 기념재단 이사장) =지난 9월 16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17일 KNUA홀에서 안익태 36주기 추모 기념 음악회를 가짐.

▲蘇鎮文(62년 齒大卒·美 UIC치대 교수) =지난 9월 12~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8차 세계소아치과학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함.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의장) =지난 9월 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또 14일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내 기반 조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짐.

▲韓和甲(63년 文理大卒·국회의원·한국기원 총재) =지난 9월 15일 한국기원 대강당에서 바둑의 체육종목 전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짐.

▲金守經(63년 齒大卒·前모교교수) =오는 10월 21일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덕성여대앞)에서 三角山 축제와 三角山 시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愼富鎬(64년 工大卒·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지난 9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통안전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가짐.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회장) =지난 9월 14일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생명공학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공학 박사학위를 받음.

▲盧健一(64년 文理大卒·인하대 총장) =지난 9월 20~25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 과학자 2백50명이 참가한 제5차 국제 황해학술 심포지엄을 가짐.

▲鄭翼人(64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한국중재학회 회장) =지난 9월 15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의실에서 추계 중재학술 세미나를 가짐.

▲黃炳茂(64년 文理大卒·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9월 20일 국방대 세종대강당에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柳在成(64년 法大卒·변호사·장호체육진흥재단 이사장) =지난 9월 17일 장충테니스코트에서 제45회 장호배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회를 가짐.

▲玄敬大(64년 法大卒·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지난 9월 21일 민주평통사무처에서 「통일 전후 독일민족간의 갈등」을 주제로 「2001 한·독 워크숍」을 가짐.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9월 4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무엇이 달라졌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林香淳(64년 師大卒·한국세무사회장) =지난 9월 1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0주년 기념식을 가짐.

▲成耆虎(64년 商大卒·성결대 총장) =지난 9월 18~19일 성결대 대강당에서 「세속화와 성결신학」을 주제로 개교 39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짐.

▲金仁煥(65년 農大卒·계명대 교수) =지난 9월 3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실에서 「지속가능개발 연구포럼」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가짐.

▲金光玉(65년 文理大卒·수원대 교수·한국방송학회 회장) =지난 9월 20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글로벌 시대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과 국가 이미지, 정체성」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洪淳吉(65년 文理大卒·한국항공대 총장) =지난 9월 20일 중소벤처기업 창업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朱光逸(65년 法大卒·제일국 제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서울전지로 타리클럽 회장) =지난 9월 25일 자매클럽인 일본 오사카 나가노지마로타리클럽 회원을 제주도로 초청, 친선모임을 가짐.

▲車培根(65년 師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회장) =지난 9월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방송과 상호작용성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朴容晟(65년 商大卒·두산중



공업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한중e비즈니스협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중 e-Biz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成千(65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 =지난 9월 1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년 퇴임 기념 작품 발표회를 가짐.

▲李承培(66년 工大卒·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9월 2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유니텔 姜世昊사장을 초청, 「생활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짐.

▲卜成海(66년 農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21세기 저명 과학자 2000인」에 선정됨.

▲閔丙均(66년 商大卒·자유기업원장) =지난 9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경제풍물 褒乘 대표를 초청, 「한국경제와 기업가」라는 주제로 제30회 자유기업포럼을 가짐.

▲李鍾協(66년 音大卒·중앙대 교수·협스트링 앙상블 음악감독) =지난 9월 2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제15회 협스트링 앙상블 정기연주회를 지휘함.

▲李孝杓(66년 醫大卒·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한국부인암재단 이사장) =지난 9월 11일 모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姜熙甲(67년 大學院卒·명지대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지난 9월 22일 한양대에서 「주식관련 현안과 법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가짐.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지난 9월 1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국, 일본, 태국 등 주요국의 통상협상 전문가를 초청, 「WTO 농업협상 : 국별제안서와 협상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세

(27면에 계속)

尹天柱 前모교 총장 별세

모교 제13대 총장을 역임한 仁齋 尹天柱박사가 지난 9월 8일 오후 10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경북 선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7년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경대 교수로 재직했다. 63년 민주공화당 초대 사무총장을 맡은 후 문교부 장관, 제7대 국회의원, 부산대 총장, 모교 총장 등을 지냈으며, 78년 학술원 회원에 선임됐다.

尹박사는 한국정치 연구에 처음으로 행태주의 이론을 도입, 우리 나라 초창기 투표 행태가 대부분 관권·금전 등 각종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른바 준봉투표(遵奉投票) 개념을 확립했으며 실증적 선거 행태 분석을 강조, 한국정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고인은 평소 선비와 관료는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한



다며 40년 이상 한반도 이사가 아니고 한옥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李貞姬여사와 장남 大根(72년 工大卒·동부제강 사장), 차남 台根(73년 商大卒·사조아메리카 사장)등문 등 2남2녀이며, 국회의원 朱鎭吁(74년 文理大卒)등문과 외교안보연구원 李瑞恒(73년 文理大卒)교수가 사위다.

유족들은 12일 돈암동 천주교회에서 장례미사를 마친 후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소재 천안공원묘지에 고인을 모셨다.

(26면에 이어)

미나를 개최함.

▲**朴性洙**(68년 師大卒·전주대 총장)=지난 9월 4일 신라호텔에서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를 초청, 특강을 가짐.

▲**韓利憲**(68년 商大卒·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지난 9월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노사정 위원회, 사회적 협약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짐.

▲**孫菊任**(68년 音大卒·숙명여대 교수)=최근 프랑스 에비앙 음악제와 독일 막스 레이거 음악제에 초청돼 독주회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13일 LG아트센터에서 드뷔시, 베토벤, 무소르그스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金圭七**(69년 法大卒·BBS블



교방송 사장)=지난 9월 15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4회 가톨릭가합창단 정기연주회 「붓다의 노래」를 공연함.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9월 20일 금융감독위 李瑾榮위원장을 초청, 「하반기 금융구조조정 방향」이란 주제로 금융경영인 조찬회를 가짐.



▲**李起澤**(69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협회장)=지난 9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

회(상임대표 李壽成)와 공동으로 「2001 치아건강 잔치」를 개최함.

▲**李承勳**(70년 工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모교 사회과학연구원장)=지난 9월 14~15일 모교 호암고수회관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중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짐.

▲**裴光宣**(70년 文理大卒·산업연구원장)=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徐東喜**(70년 美大卒·건국대 디자인문화대학장)=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최대의 도자기 업체인 Villeroy and Boch에 연구과제 수행차 방문함.



▲**李相甲**(70년 美大卒·서울고대 교수)=지난 9월 12~18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제6전시실에서 「場(field)」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9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주제로 포럼을 가짐.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인류학과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지난 9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교



수회의실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윤흥기 교수를 초청, 「외국수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62회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를 가짐.

▲**全熙天**(72년 文理大卒·오리콤 사장)=지난 9월 3일 광고업계에서 처음으로 브랜드 전문 격월간지 「오리콤 브랜드 저널」을 창간함.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대 법대 교수)=지난 9월 14일 저서 「국제거래법」의 인지도 3백4만6천50원 전액을 불우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동아꿈나무재단에 전달함.

▲**鄭用德**(73년 農大卒·모교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지난 9월 14~15일 강원 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21세기 지방행정의 과제와 비전」 학술대회를 가짐.

▲**朴在甲**(73년 醫大卒·국립암센터 원장)=지난 9월 5일 「말기 암환자 삶의 질 -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安秉均**(74년 文理大卒·경기대 교수)=최근 논문집 「權山論叢」을 출간함.



▲**金善蓮**(74년 音大卒·Classical Nuances 멤버·오보이스트)=지난 10월 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크레이, 헤드, 뢰플러 등의 작품으로 오보예독주회를 가짐.



▲**文玄卿**(75년 家政大卒·단국대 교수·대한영양사협회장)=지난 9월 24일 연세대 동문회에서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가짐.



▲**尹永寬**(75년 文理大卒·모교 외과학과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지난 9월 15일 한글회관에서 「세계화시대의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源德**(75년 商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지난 9월 12~13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원 13주년 기념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가짐. 또 22일 호주에서 열린 노사관계학회 연차총회에 참석, 「한국의 노사관계 - 최근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함.



▲**裴永洙**(76년 人文大卒·모교 서양사학과 교수·대학신문 주간)=지난 9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미국학연구소 집담회에서 「미국과 미국학의 현안 및 쟁점」 주제발표를 함.



▲**鄭斗彥**(80년 社會大卒·한나라당 부대변인 겸 서대문을 지구당위원장)=지난 9월 18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를 주제로 특강을 함.



▲**表時烈**(81년 行大院卒·고려대 교수·대한교육법학회 회장)=지난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주체의 법적

(28면에 계속)

新刊

■ 아나마와 아니무스

—李符永 著



한국웅연 구원의 설립자인 李符永(59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원장이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가운데 2편을 내놨다.

1편 「그림자」가 인간 마음속의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 책은 그림자 더 안쪽에 자리잡은 무의식의 내적 인격을 뜻한다.

남성 속의 여성 아나마와 여성 속의 남성 아니무스를,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과 그 제자, 동료의 학설과 논평을 근거로 설명했다. (한길사刊·값12,000원)

■ 經濟, 經濟思想

—李柱晟 著

지난 8월말 성신여대를 정년 퇴임한 李柱晟(65년 大學院卒) 동문이 논문집을 펴냈다.

지난 83년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저서 「국민경제학」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간행한 바



있는 李柱晟은 이번 책에 종속 이론과 제3세계, 통일 후의 우리 경제, 경제학의 사조, 리스트의 경제사상 연구 등을 담았다. (성신여대출판부刊)

■ 영국에서 떠나는 유럽 자동차 여행 및 영국 생활 정보

—朴鍾守 著



SK(주) 아로 마틱 Trading 팀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업무 담당 과장인 朴鍾守(89년 農大卒)동문이 영국 연수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자동차 여행에 대한 책을 펴냈다.

영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교민들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면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 영국인들이 하찮은 정보도 책으로 집대성, 지식자산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는데 영향받아 한국인들을 위한 책을 써보자고 결심했다고.

朴동문은 알고보면 배낭여행보다 저렴하고, 여행자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장 효율적으로 유럽여행을 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여행을 추천하고 있다. (제일어학刊·값16,000원)

■ 겨울에 부르는

—金鍾久 著



국방홍보원장을 역임한 金鍾久(47기 ACAD) 동문이 최근 隨想集을 펴냈다.

정치, 행정, 국제, 문화 등 각종 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공직 체험기, 그리고 틈틈이 신문, 잡지 등에 기고했던 에세이를 담았다.

金동문은 현재 IT벤처기업(주)Digilog의 명예회장을 비롯 민주통일복지연합 대변인 겸 기획위원장, 경실련 부정부

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정은문화사刊·8,000원)

公演

■ 金裕恩피아노독주회

—10월27일 일산 돌체음악실

—11월 1일 서울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金裕恩(92년 音大卒)동문이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순회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습과 연주의 세계」를 주제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9월 20일), 대구 어린이회관(10월 4일),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10월 9일), 광주 드림아트홀(10월 12일) 등에서 공연을 마쳤으며, 일산과 서울에서 쇼팽, 라흐마니노프, 슈만 등의 연습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3486-9154)



피아니스트 金裕恩동문.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8월 2일~2001년 9월 14일·一般: 2001년 8월 2일~2001년 9월 14일〉

평생회비

- ▲김경일(57년 藥大卒)=20만원
- ▲박성준(92년 工大卒)=20만원
- ▲이우명(70년 文理大卒)=20만원
- ▲송혜정(97년 社會大卒)=20만원
- ▲남인용(90년 社會大卒)=20만원
- ▲김상열(50기 AMP)=20만원
- ▲이호성(74년 商大卒)=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 ▲김종수⑧ 한울출판사 대표

◇社會科學大學

- ▲이천복⑦ 하나은행영등포지점
- ▲최형근⑦ 자산관리공사 이사

◇看護大學

- ▲홍경자⑥ 모교 교수

◇工科學大學

- ▲곽정석④ 세화건축 소장
- ▲김규갑⑥ 협성실업 대표
- ▲김덕영⑦ 인터세크 이사
- ▲김동진⑦ 현대자동차 사장
- ▲김무현⑥ 진아건축 대표
- ▲김상화④ 태영석회 대표
- ▲김창호⑦ 에스큐브 대표
- ▲김형주⑥ 삼안건설 회장
- ▲서진구⑦ 코인텍 사장
- ▲원제혁④ 모아통신 대표
- ▲유재소⑥ 도화종합기술 부회장
- ▲이기창⑥ 전서울시종합건설본부
- ▲이동선⑥ 남해선박 대표
- ▲이종진⑥ 성광교육재단
- ▲이종훈⑥ 성하지질 대표
- ▲전봉수⑥ 전우구조건축 대표
- ▲한수은⑥ 경화엔지니어링 회장

◇農科學大學

- ▲권오진⑥ SK입업 고문
- ▲김동태⑥ 농림부 장관
- ▲김종훈⑦ 매일경제신문 이사
- ▲김현구⑥ 前청주교육대학장
- ▲심상현④ 삼호화공기계 대표
- ▲임수호⑥ 대한잡사회 회장
- ▲정수봉⑥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장
- ▲정운조⑥ 조영공업사 회장
- ▲한갑준⑥ 前삼주물산 고문

◇文科學大學

- ▲김승훈⑥ 前국회의원
- ▲김두영⑥ 태왕공영 회장
- ▲김희상⑦
- ▲민영기⑥ 경희대 교수
- ▲박 실⑥ 국회 사무총장
- ▲신명범⑥
- ▲신지현⑦ 인천교대 명예교수
- ▲이준일⑥ 중앙대 정경대학장
- ▲정준호⑥ 국방대학원 교수
- ▲한영우⑥ 모교 교수

◇美術大學

- ▲이종복⑥ 포름디자인 회장

◇法科學大學

- ▲고광석⑥
- ▲김기석④ 변호사
- ▲김동원⑥ 前대우투자금융 감사
- ▲김영기⑥ 롯데칠성음료 전무
- ▲김영술⑥ 변호사
- ▲김재해⑥ 前주택산업연구원
- ▲박길수⑦ 사조CS 대표
- ▲변충근⑥ 소아마비협회 사무장
- ▲서규택⑥ 동성제약 부회장
- ▲성천경⑥ RTN방송 대표
- ▲손종석④ 前서울도시철도공사
- ▲송윤재⑥ 현대상선 상근고문
- ▲신성철⑥ 삼흥종합법률사무소
- ▲원세훈⑦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 ▲유정호⑥ 한국개발연구원
- ▲이 돈⑥ 시네마당구장 대표
- ▲이영대⑥ 서울고법 판사
- ▲장상재⑥ 경찰위원장
- ▲장운석⑦ 장원지검장
- ▲정광진⑥ 변호사
- ▲차수명⑥ 前국회의원
- ▲한장희⑥ 대주공업 대표

◇師範大學

- ▲고준식⑥ 동작교육청 상담위원장
- ▲김덕순⑥ 前명일여고 교장
- ▲김창선⑥ 기독교선교원 사무국장
- ▲민경현⑦ 풍문여고 이사장
- ▲이선준⑥ 일성사상연구소장
- ▲전팔근⑥ 원불교 교령
- ▲정종호④ 대우자동차 감사
- ▲정대규⑦ 광전실업 대표
- ▲최재근⑥ 풍문여고 교장
- ▲한도연⑥ 싸이브리아 PC방

◇商科學大學

- ▲김만경⑦ 한전석유공업 대표
- ▲김정순⑥ 신영 상임고문
- ▲나길웅⑥ 브링스코리아 대표
- ▲민병래⑥ 前조흥증권 부사장
- ▲배홍규⑦ 안건회계법인
- ▲엄일영⑦ 동서증권 고문
- ▲이건재⑥ 오정약품 대표
- ▲이광호⑥ KM신용정보 대표
- ▲이기용⑥ 영남방직 대표
- ▲이은방⑥ CTI 대표
- ▲임병태⑦ 태평양물산 대표
- ▲정영기⑥ 前대양금속
- ▲허남진⑥ 前삼성전자 이사
- ▲홍성인⑥ 前대창공업 부사장

◇獸醫科學大學

- ▲김재원⑥ 버락코리아 회장
- ▲김호훈⑥ 한국백신 고문
- ▲서동일⑥ 이태원가축병원 원장
- ▲이상만⑥ 수의사

- ▲이종화⑦
- ▲이형우⑥ 이수외과병원장
- ▲임영일④ 합동동물병원장

◇藥學大學

- ▲김원보⑦ 평안약국 약사
- ▲김일성④ 오츠카제약 부사장
- ▲김태곤⑦ 건강이열리는약국
- ▲송희섭④ 송약국 약사
- ▲신현학⑥ 부산약국
- ▲유용근⑥ 한국그락소 전무
- ▲조양태⑦ 로슈비타민코리아 대표

◇音樂大學

- ▲이경숙⑥ 前모교 교수

◇醫科學大學

- ▲김영균④ 동아제약 상임고문
- ▲김홍규⑦ 일신산부인과의원장
- ▲이근식④ 내과의원장
- ▲주근원④ 한국배상학회회장
- ▲지영일⑥ 신일병원장
- ▲하재동⑦ 재동의원장
- ▲홍창의⑦ 서울중앙병원 교수

◇齒科學大學

- ▲강기봉⑥ 강치과의원장
- ▲구창서④ 구창서치과의원장
- ▲권일근⑥ 권치과의원장
- ▲송희춘⑥ 송치과의원장
- ▲이영대⑦ 삼선치과의원장
- ▲임장섭⑥ 임치과의원장
- ▲장치영⑥ 장치영치과의원장
- ▲정소영⑥ 정소영치과의원장
- ▲최재환⑥ 삼양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 ▲이상선⑥ (주)경방 감사
- ▲이운재⑦ 농협중앙회 연구위원
- ▲이운수⑥ 대한언론인회 이사
- ▲한상진⑦ 유니코써머지 회장

◇司法大學院

- ▲김적승⑥ 변호사
- ▲안석대⑥ 변호사

◇行政大學院

- ▲임병규⑥ 국회사무처 총무과장
- ▲차유배⑥ 대덕산업 회장
- ▲최규학⑥ 소비자보호원장

◇最高경영자과정

- ▲정재문⑤ 국회의원

일 반

◇人文大學

- ▲강병국② ▲권영기⑤ ▲김영균⑥
- ▲손영진③ ▲손진욱③ ▲오보영⑦
- ▲이봉연⑦ ▲이상규⑧ ▲이옥정⑤
- ▲정원섭③ ▲정희훈⑤ ▲조연수③
- ▲최진주③ ▲함호근③

◇社會科學大學

- ▲강종석⑤ ▲고동현⑤ ▲김광진⑥
- ▲김규연③ ▲김민주⑦ ▲김성열⑥
- ▲김성완⑦ ▲김승기⑦ ▲김영대⑤
- ▲김지호② ▲김현아③ ▲김현욱③
- ▲나형주⑥ ▲남인용⑥ ▲노태선⑦
- ▲박성민⑧ ▲배광민③ ▲성상우③
- ▲송혜정⑦ ▲신두영② ▲신장섭①
- ▲안규배⑤ ▲윤상기③ ▲이강국④
- ▲이두식⑦ ▲이병훈④ ▲이용직⑤
- ▲이종은③ ▲이창민③ ▲이태환③
- ▲임준순⑥ ▲정인익⑦ ▲조권준⑥
- ▲주광열① ▲최 현③ ▲최관병③
- ▲최영환⑥ ▲최인혁⑤ ▲한덕연③
- ▲한영기② ▲황의균⑥

◇自然科學大學

- ▲강봉주③ ▲김병국③ ▲김이준③
- ▲김호신③ ▲김효진⑤ ▲박상수⑤

(27면에 이어)

지위와 교육법」을 주제로 교육법 대토론회를 가짐.

▲李忠範(82년 法大卒·정해복 지 이사장)=오는 10월 27일 잡실 아시 아공원에서 저소득 장애우들에게 무상으로 휠체어를 제공하는 「제6회 사랑의 휠체어 500대 보내기 운동」을 갖는다.

▲曹永卓(89년 經營大卒·휴넷 사장)=지난 9월 23일 국내 최고의 경영학 중진 교수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주)크리에티즌(대표 趙南旻·78년 經營大卒·한국외대 교수)과 포괄적 업무 제휴를 맺음.

▲安芝潤(95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지난 9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폴랑, 모차르트, 야나체크,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독주회를 가짐.

▲姜榮中(28기 AMP·대교문화재단 이사장)=지난 9월 14~17일 제2회 전국대학·대학원생 조각대전에서 선정된 작품 21점을 세종문화회관 신관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17일 시상식을 가짐.

▲嚴三鐸(31기 AMP·ROTC중앙회장)=지난 9월 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ROTC창설 40주년을 맞아 오페라 「춘향전」 공연을 가짐.

▲金澈運(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충효예실천운동본부 총재)=지난 9월 26일 YMCA 2층 대강당에서 충효예실천

운동본부 임시총회 겸 제1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함.

또 오는 10월 26일 재향군인회 회관 대강당에서 충·효·예 및 문화시민운동 유공자 시상식을 갖는다.

▲張慶作(33기 AMP·웨스턴호텔 사장)=지난 9월 19일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웨스턴 호텔호텔의 고객만족 경영추진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함.

▲康珍敬(43기 AMP·연세대의료원장)=지난 9월 14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환자 서비스 향상과 병원경영 합리화 방안 마련」 행정책임자 워크숍을 가짐.

▲張昶珪(43기 AMP·한국국방연구원장)=지난 9월 3~6일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전략학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중 양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방학술포럼을 개최함.

▲鄭然東(48기 AMP·한전KDN 사장)=지난 9월 1일 한전아츠플센터 대극장에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金聖曦(73년 工大卒)교수를 초청, 「e-Biz를 통한 Smart Organization화」를 주제로 신기업 문화창출을 위한 조찬강연회를 가짐.

▲李文鏞(27기 ACAD·경남신문국장·광동중고총동문회장)=지난 9월 17일 동문들에게 장학금 2억원을 모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통일육에서 광동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함.

▲李 沁(32기 ACAD·한국주택신문 사장·한국잡지협회장)=지난 9월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7회 「주택문화상」 시상식을 가짐.

▲孫井植(44기 ACAD·한국어향협회장)=지난 9월 12일 전국 어항 어촌 지역 수산계 고등학생 1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함.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보건 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장)=지난 9월 1일 인천해동노인전문병원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졌으며, 21일 카톨릭대 성모병원과 한·양방병원의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서태건⁹⁹ ▲소상완⁹² ▲송 운⁹²
▲안무현⁹⁸ ▲이현주⁸⁹ ▲임병철⁸⁷
▲임인성⁸⁵ ▲전덕영⁷⁶ ▲정현모⁷⁷
▲최성화⁸⁹ ▲최진혁⁷⁸ ▲허은기⁸⁸

◇家政大學

▲권진숙⁴⁶ ▲김미정⁸⁸ ▲성현경⁷⁶
▲이매리⁸⁸ ▲이승림⁸⁰ ▲이영자⁶⁹
▲임순필⁷⁴ ▲조정자⁶⁵ ▲조혜경⁷⁴
▲주정일⁴⁶ ▲지지원⁸⁵ ▲최정이⁸⁸
▲허유선⁹² ▲허유인⁹⁰

◇看護大學

▲계성희⁸⁴ ▲김명자⁵⁹ ▲민규홍⁵⁹
▲박양자⁶⁴ ▲방경숙⁸⁵ ▲윤지현⁹⁷
▲이경자⁶⁶ ▲이성자⁸⁴ ▲이은범⁸⁴
▲지윤정⁹⁵ ▲최은옥⁸²

◇經營大學

▲문제국⁹³ ▲박인근⁹⁸ ▲박종완⁷⁸
▲오진환⁸¹ ▲유인식⁹⁶ ▲유화석⁷⁹
▲이광열⁸² ▲이대찬⁸⁶ ▲이문한⁹⁴
▲이재관⁸¹ ▲이종인⁷⁷ ▲이현우⁸⁸
▲전영조⁹⁵ ▲정세찬⁸⁷ ▲최백경⁷⁷
▲최종현⁸⁰ ▲하형석⁹³

◇工科大学

▲강무치⁷¹ ▲강문석⁷⁴ ▲고광열⁷⁸
▲고병렬⁵⁴ ▲곽병호⁸⁵ ▲곽태현⁷³
▲구형모⁸³ ▲권귀석⁹⁶ ▲권상철⁷⁸
▲권영하⁶⁸ ▲김 우⁸¹ ▲김경현⁹⁰
▲김계주⁶³ ▲김광명⁶² ▲김구면⁹⁸
▲김규섭⁷¹ ▲김기대⁹¹ ▲김남선⁵⁶
▲김대근⁹³ ▲김대희⁹⁷ ▲김덕수⁸⁵
▲김동인⁶⁶ ▲김발호⁸⁴ ▲김상배⁸¹
▲김수남⁵⁸ ▲김수환⁷³ ▲김영석⁹¹
▲김영택⁶⁰ ▲김중원⁸⁴ ▲김진용⁸³
▲김진호⁹⁸ ▲김창수⁸⁸ ▲김충기⁶⁵
▲김충엽⁶¹ ▲김태수⁷³ ▲김화용⁷²
▲김희범⁷⁵ ▲김희창⁶² ▲남일순⁸⁵
▲노 광⁸¹ ▲노승규⁸⁶ ▲류성희⁸¹
▲문명국⁷⁵ ▲문제준⁷⁸ ▲민경탁⁷⁵
▲민병기⁸⁰ ▲민철기⁶³ ▲박노상⁶¹
▲박두화⁵⁵ ▲박상식⁹² ▲박성준⁹²
▲박재열⁹⁰ ▲박종태⁶⁵ ▲박준기⁷²
▲박형상⁹² ▲방현규⁷² ▲배영주⁸⁴
▲백봉주⁷³ ▲서병은⁶² ▲손계욱⁷⁴
▲손익식⁷⁶ ▲손철수⁹¹ ▲신건화⁶¹
▲신상모⁷⁵ ▲신성욱⁷³ ▲신현직⁶⁸
▲심호섭⁹⁷ ▲안기우⁵⁰ ▲안호순⁴⁸
▲양기정⁷⁵ ▲염창진⁸⁴ ▲오성범⁸⁸
▲오창수⁵⁶ ▲원준영⁸¹ ▲유성렬⁷⁵
▲유심덕⁶⁵ ▲유재범⁷² ▲유정근⁵⁷
▲유태노⁵⁶ ▲육내승⁵¹ ▲윤덕규⁴⁹
▲윤은원⁶⁶ ▲윤재환⁷⁹ ▲이강연⁶⁸
▲이건이⁶⁷ ▲이경선⁸⁸ ▲이경태⁵⁸
▲이경환⁷⁰ ▲이광우⁷⁷ ▲이기설⁵¹
▲이단형⁷¹ ▲이대훈⁷⁸ ▲이무진⁵⁷
▲이방식⁵² ▲이상건⁷⁸ ▲이선환⁵⁶
▲이시연⁹² ▲이용성⁹² ▲이일환⁶⁰
▲이정철⁹⁸ ▲이종빈⁸⁰ ▲이주완⁶⁹
▲이주진⁷⁵ ▲이진기⁵⁴ ▲이진우⁵⁷
▲이창범⁶¹ ▲이충덕⁷³ ▲이한봉⁵⁶
▲이호인⁷⁰ ▲이희일⁵⁶ ▲장낙영⁶⁶
▲장준원⁷⁹ ▲전용원⁵⁴ ▲전종균⁸⁰
▲전창성⁹⁶ ▲전홍규⁶⁹ ▲정기호⁸⁶
▲정기성⁸³ ▲정문창⁶⁴ ▲정수경⁹⁷
▲정원배⁶⁶ ▲정재인⁹⁷ ▲정재호⁹²
▲정재훈⁹⁵ ▲정철화⁸⁹ ▲정태호⁷²
▲조건우⁸¹ ▲조병문⁶⁵ ▲조원대⁶⁷
▲조철제⁶¹ ▲주기태⁷³ ▲주성재⁹³
▲천익정⁷³ ▲최병삼⁷² ▲최병석⁸⁵
▲최병필⁶² ▲최재근⁸⁵ ▲최재성⁷⁹
▲최재호⁷⁰ ▲최현근⁸⁹ ▲한봉희⁵²
▲함대용⁵⁵ ▲허병윤⁶¹ ▲현범석⁹²

▲현승호⁹¹ ▲홍성택⁵² ▲홍순곤⁵⁶
▲황성조⁶⁷ ▲황영철⁵⁷ ▲황익남⁶⁶

◇農科大學

▲강인식⁸³ ▲강정모⁶⁹ ▲공재영⁸³
▲기상서⁹¹ ▲김관진⁷³ ▲김광호⁷²
▲김남혁⁶⁷ ▲김덕환⁷⁸ ▲김명래⁵⁷
▲김병건⁹² ▲김성근⁶⁹ ▲김수현⁹⁸
▲김영환⁶² ▲김학기⁷⁰ ▲김환수⁸⁸
▲남상운⁸⁴ ▲노영성⁷⁸ ▲노재홍⁶³
▲류관희⁶⁷ ▲문현주⁷⁸ ▲박병훈⁸³
▲박창서⁶⁵ ▲배광후⁵⁵ ▲서문영⁶⁷
▲손동하⁹⁴ ▲송병국⁸⁵ ▲신세영⁸⁰
▲신왕식⁷² ▲원청언⁶⁹ ▲유 석⁶⁵
▲유근영⁶¹ ▲유승렬⁵⁷ ▲이수성⁶³
▲이재구⁶² ▲이호상⁷⁷ ▲전광술⁵⁷
▲정진국⁷⁵ ▲정호선⁸⁷ ▲조수형⁶³
▲조한보⁵² ▲진광혁⁵⁷ ▲최성규⁶⁴
▲최영호⁷⁹ ▲한중석⁶⁵ ▲현호언⁵⁷
▲황영자⁶³ ▲황용진⁶¹

◇文理科大學

▲강근탁⁷² ▲권오광⁵⁹ ▲김덕중⁷⁵
▲김덕창⁶³ ▲김동렬⁶⁴ ▲김민식⁶⁹
▲김순태⁶¹ ▲김용달⁶² ▲김용민⁴⁷
▲김정자⁶⁴ ▲김정택⁶⁰ ▲김관우⁴⁹
▲김현석⁶⁹ ▲나형수⁶⁶ ▲류민성⁷¹
▲명재영⁶⁹ ▲민여숙⁵⁷ ▲박종표⁶⁴
▲서세창⁵⁷ ▲서한창⁷² ▲성기훈⁶⁴
▲손보기⁴⁷ ▲손재국⁷² ▲송병찬⁶³
▲송병희⁶⁵ ▲송성원⁶⁵ ▲송철호⁶⁷
▲신충근⁶⁵ ▲신대건⁷¹ ▲안병근⁷⁴
▲오관영⁴⁷ ▲오세정⁷⁵ ▲유 영⁷⁰
▲유기수⁵⁷ ▲윤종주⁵⁵ ▲이 랑⁶⁴
▲이민우⁶⁵ ▲이상근⁶¹ ▲이성우⁶⁸
▲이우명⁷⁰ ▲이정립⁵⁴ ▲이주영⁶⁵
▲이지영⁷⁴ ▲임용철⁶⁸ ▲임진비⁷⁴
▲장석환⁶⁶ ▲정규수⁶⁷ ▲정운택⁴⁹
▲채기원⁵⁹ ▲최경도⁶⁶ ▲한운사⁴⁷
▲현영옥⁷¹

◇美術大學

▲강명희⁷⁷ ▲권혁복⁸⁶ ▲김경수⁶³
▲김홍규⁸⁸ ▲문기선⁶¹ ▲신수길⁷⁴
▲우상호⁹³ ▲이수빈⁹³ ▲이용덕⁶²
▲이원자⁶³ ▲이지은⁹⁰ ▲정영섭⁶⁰
▲정한솔⁹¹ ▲조정승⁶⁵ ▲지윤미⁶⁶
▲최인수⁷⁰ ▲대길성⁵⁹

◇法科大學

▲강희문⁶⁷ ▲고현석⁷³ ▲구남수⁸⁵
▲김국진⁶⁵ ▲김동주⁷¹ ▲김상일⁸⁷
▲김시형⁶² ▲김양모⁵⁹ ▲김영환⁸⁸
▲김윤철⁵² ▲김종일⁵⁶ ▲김형태⁶⁵
▲김희용⁶⁴ ▲문해성⁶³ ▲박현순⁷⁷
▲박호서⁷⁷ ▲배기민⁵⁴ ▲백운재⁶²
▲변득수⁶⁷ ▲서복현⁸⁰ ▲서왕원⁶¹
▲서원철⁵⁷ ▲성낙인⁷³ ▲안영무⁶⁵
▲안창환⁸⁸ ▲오종환⁸⁷ ▲원형일⁹²
▲유시동⁶¹ ▲유인식⁷⁴ ▲윤영철⁵⁷
▲이상근⁶⁹ ▲이승섭⁶¹ ▲이춘근⁶⁷
▲이호연⁶⁴ ▲장해창⁷⁸ ▲정진국⁷⁴
▲정형민⁷⁴ ▲조용근⁵⁸ ▲조재환⁵⁷
▲조해현⁸¹ ▲차동민⁸¹ ▲최인룡⁶⁵
▲최정렬⁸⁶ ▲최춘기⁶¹ ▲홍순범⁵²
▲홍일표⁶⁷ ▲황치오⁹⁰ ▲황형모⁷⁵

◇師範大學

▲강철용⁷⁶ ▲김병국⁶³ ▲김성열⁸²
▲김용진⁷⁹ ▲김우탁⁶¹ ▲김인옥⁷⁶
▲김정란⁶³ ▲김준말⁵⁹ ▲김진실⁴³
▲김풍자⁶⁸ ▲김후란⁵³ ▲문기웅⁹⁸
▲민영업⁶⁰ ▲박동근⁶² ▲박상규⁵⁸
▲박성민⁷⁴ ▲박영배⁵⁷ ▲박정일⁶⁴
▲박진길⁶⁴ ▲박전배⁷⁸ ▲박환운⁵⁹

▲방영선⁷⁹ ▲성 현⁷³ ▲소진광⁷⁸
▲송옥화⁵⁹ ▲심복석⁶⁴ ▲심용섭⁶¹
▲안희익⁶⁸ ▲여태웅⁸⁷ ▲오지연⁹¹
▲오평진⁷⁵ ▲옥한석⁷⁷ ▲원필순⁷¹
▲유기웅⁷² ▲유남두⁶¹ ▲유완수⁶⁰
▲유재택⁷³ ▲육숙자⁹⁹ ▲윤웅섭⁸⁸
▲윤주학⁷⁶ ▲이덕환⁵⁷ ▲이명근⁶⁷
▲이상고⁶⁵ ▲이영복⁷⁵ ▲이운우⁶⁸
▲이재성⁷⁶ ▲이정태⁶⁰ ▲이창호⁷⁵
▲이훈상⁶⁵ ▲임문식⁶¹ ▲임은란⁹²
▲임현소⁷³ ▲장영호⁸¹ ▲장효원⁴¹
▲전수남⁶³ ▲정대용⁶⁸ ▲정일섭⁶⁹
▲조선희⁹⁷ ▲조한민⁷⁷ ▲지봉식⁸³
▲최계숙⁵⁶ ▲최명순⁵⁸ ▲한인숙⁷⁰

◇商科大學

▲강남언⁶² ▲강달중⁵⁵ ▲강선필⁶²
▲강종기⁶⁰ ▲김동녕⁶⁸ ▲김동인⁷⁰
▲김병삼⁷² ▲김석환⁶⁸ ▲김수환⁷³
▲김승용⁶⁸ ▲김진호⁵¹ ▲노정옥⁵²
▲노창환⁵⁷ ▲박민철⁶² ▲백정기⁷⁵
▲손호목⁶¹ ▲신휘창⁵⁸ ▲윤영원⁶⁰
▲윤지원⁶⁵ ▲이동훈⁵⁹ ▲이연택⁶⁴
▲이용기⁶⁵ ▲이재우⁵⁵ ▲이준복⁷¹
▲이호성⁷⁴ ▲이홍준⁵² ▲정경원⁵⁹
▲정대경⁵⁹ ▲진윤구⁷⁵ ▲차우상⁵¹
▲최봉렬⁷¹ ▲최충호⁵⁶ ▲한홍광⁶⁸
▲허 길⁵⁶ ▲황상교⁵⁷

◇獸醫科大學

▲강부현⁷⁶ ▲권희동⁷⁸ ▲김고명⁶⁰
▲김덕수⁶³ ▲김명중⁶³ ▲김용팔⁸¹
▲김홍중⁷⁷ ▲박병식⁶¹ ▲박유순⁶⁷
▲이완규⁸³ ▲이한일⁶⁶ ▲이희구⁶¹
▲장 영⁶⁹ ▲정삼희⁹⁴ ▲정진화⁵⁶

◇藥學大學

▲강 건⁶⁶ ▲강탁립⁶⁸ ▲김경일⁵⁷
▲김완희⁷² ▲김해주⁸⁴ ▲신현호⁶⁷
▲우제안⁶¹ ▲유영욱⁹⁴ ▲이복선⁵⁵
▲이삼수⁸⁴ ▲이해돈⁷⁵ ▲이해빈⁵⁸
▲전계수⁶² ▲정인조⁵⁵ ▲조진섭⁴⁷
▲최경희⁵³ ▲최영해⁹² ▲한정연⁸⁹
▲한한길⁶⁷ ▲황봉자⁶⁵

◇音樂大學

▲김 강⁶⁵ ▲김영숙⁵⁹ ▲김현중⁶²
▲문용숙⁷⁹ ▲박경옥⁸¹ ▲박혜정⁸¹
▲백승희⁷⁹ ▲변미혜⁷⁹ ▲서혜숙⁸⁷
▲안지선⁸⁹ ▲육영희⁶⁸ ▲윤은희⁹²
▲이경희⁸¹ ▲이단렬⁶⁷ ▲이인희⁶²
▲이형환⁶⁶ ▲장우형⁷⁷ ▲전민숙⁷⁰
▲정수안⁹⁴ ▲정운대⁷⁸ ▲최덕천⁸²
▲최문진⁷⁷ ▲최희연⁹³ ▲한은진⁷²
▲홍신숙⁶¹ ▲홍영자⁵⁹

◇醫科大學

▲김교명⁴⁷ ▲김영태⁸⁸ ▲김용익⁷⁷
▲김종석⁵¹ ▲노국룡⁵⁹ ▲박찬철⁵⁹
▲서정주⁹⁹ ▲원세재⁵² ▲유영삼⁸⁶
▲윤병우⁸⁰ ▲이상록⁶⁹ ▲전동수⁵⁰
▲정진호⁸⁴ ▲주경란⁷⁵ ▲차왕보⁵⁹
▲함병문⁷² ▲허민강⁸³

◇齒科大學

▲강신구⁷¹ ▲강윤모⁸⁶ ▲김민수⁶⁰
▲김익식⁴⁴ ▲김축준⁵² ▲도정욱⁸⁰
▲박준범⁸³ ▲박진환⁵⁵ ▲방승용⁷⁰
▲안병관⁵⁶ ▲양상덕⁸³ ▲양재희⁸¹
▲여종환⁶⁰ ▲오경서⁵⁹ ▲우선형⁵¹
▲은세원⁸⁵ ▲이병화⁸⁸ ▲이성일⁸⁴
▲이성중⁷⁸ ▲정명선⁴⁹ ▲정연명⁸²
▲정옥근⁵¹ ▲조근태⁶¹ ▲진운수⁶⁶
▲채윤필⁸⁶ ▲최낙준⁷⁸ ▲최동광⁶⁹
▲하미숙⁸⁹ ▲한광희⁷² ▲한태원⁷⁶

◇大學院

▲김광성⁷⁷ ▲김기용⁸⁵ ▲김성집⁶³
▲민경식⁷⁹ ▲박희복⁸⁵ ▲송영화⁹⁷
▲양희석⁸⁶ ▲이강웅⁸² ▲이성모⁸⁸
▲이수형⁷⁸ ▲이은기⁸⁴ ▲최종수⁷⁷

◇經營大學院

▲박기범⁶⁸ ▲박준석⁶⁹ ▲이홍렬⁷²
▲정일채⁶⁹ ▲조현국⁷⁶ ▲지치상⁹²

◇保健大學院

▲남광현⁷³ ▲노태영⁹⁷ ▲윤순규⁹⁰
▲이순남⁹² ▲최규옥⁸¹

◇新聞大學院

▲김민남⁷⁸ ▲김우룡⁷³ ▲윤임술⁶⁹

◇行政大學院

▲신성섭⁸⁹ ▲여상환⁶⁸ ▲장학상⁷⁰
▲최재열⁸⁰

◇環境大學院

▲권범근⁹⁸ ▲박병욱⁸⁴ ▲채승기⁸³

◇最高경영자과정

▲김강배⁵⁰ ▲김동호¹⁵ ▲김상열⁵⁰
▲김성섭⁴⁴ ▲김종길²⁹ ▲김준화¹⁸
▲김중국⁹ ▲김진홍¹⁹ ▲박병제⁴³
▲박영숙³¹ ▲신현철⁴⁷ ▲심현영²⁷
▲안기옥¹⁶ ▲안시환²⁰ ▲안정호⁴³
▲우태명⁵ ▲유태영⁴⁵ ▲이건일²⁹
▲이영숙¹³ ▲이일선⁹ ▲이장오⁵⁰
▲이종수⁴¹ ▲장경남⁴⁶ ▲조두희²⁹
▲최병면⁴¹ ▲편승언³⁶ ▲홍연석⁶
▲황규현⁴⁴

◇最高산업전략과정

▲김재열¹⁶ ▲김주곤³ ▲박대전¹⁵

▲서병국¹⁹ ▲이명호²⁰ ▲이재천²⁴
▲조종진²³ ▲최정숙²⁴ ▲하동휘²³
▲황영재¹⁰

◇국가정책과정

▲김기봉⁵⁰ ▲김덕창³⁹ ▲김종연²⁹
▲김홍봉⁴ ▲남기춘³⁹ ▲박기철³⁹
▲박상규⁴² ▲박선만²⁵ ▲백석현²⁰
▲서길병⁴⁷ ▲신태희³² ▲안희수³³
▲오세득³² ▲이교용⁴⁰ ▲이용구⁵¹
▲이정재⁴⁶ ▲전종식⁷ ▲조희완⁵⁰
▲최병인⁵

◇고급금융과정

▲김성일¹⁵ ▲김정갑⁵ ▲윤우상¹²
▲이수현⁸ ▲허 승²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유금중³ ▲윤정섭⁴ ▲이춘섭⁵
▲정진근⁴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대규³ ▲김철수⁶ ▲송세광³
▲신관순⁶ ▲안병철⁵ ▲조명희⁷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박원희⁴ ▲정동화⁷ ▲조동섭⁴

◇해양정책최고과정

▲방석관¹

합 계 : 25,110,000원

입회비 : 25,860,000원

총 계 : 479,479,808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8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방국연⁹¹ ▲양승우⁹² ▲조선영⁸⁹

◇社會科學大學

▲공훈의⁸³ ▲류성환⁹⁷ ▲박정명⁹²
▲안명수⁹³

◇自然科學大學

▲이현배⁹¹

◇家政大學

▲김소영⁹⁵ ▲성숙경⁸⁴ ▲엄유선⁸⁶

◇經營大學

▲이기선⁹⁶ ▲황중하⁹⁴

◇工科大学

▲강국창⁹⁰ ▲김태정⁷³ ▲박지형⁷⁹
▲서윤수⁹⁸ ▲윤성철⁹⁶ ▲윤진구⁹⁶
▲이준원⁹⁸ ▲이채원⁹⁹ ▲정대영⁹²

◇農科大學

▲손영근⁹² ▲송재철⁹⁶ ▲윤여성⁸³

▲이

동문의 소리

모교의 가르침 이제야 고맙게 느껴

金庚子(62년 師大卒)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장



가을 햇빛이 너무도 따가우면 서도 힘있게 우리 학교 운동장에 넓게 깔린 잔디를 향하고 있다. 겨울을 준비하라는 배려(?)인 것 같아 자연의 신비로움에 나 혼자 감탄을 느낀다. 여름철 가뭄 끝에 시원한 비가 온 후면 파란색 잔디가 강한 생명력을 보일 때도 난 자연의 손길에 고마움과 경이를 느꼈었는데...

학교 운동장 잔디를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단비, 겨울을 준비(?)해 주려는 가을 햇빛과 같은 손길이 어찌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면 그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사랑과 배려인 것

같아 그것이 내 몫임을 느껴본다.

40여 년전 대학 졸업 후 졸공 교직에 몸담아 왔고 命에 의한 퇴직을 1년 여로 앞두고 있다. 마음은 동송동 문리대 운동장에서 입학식 때(1958년) 감색 교복에 검은 베레모를 썼던 새내기 마음 그대로이고, 서울대 교가를 앞세운 총장님의 모습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존경과 서울대 입학에 자랑을 느낀 감정도 그대로인데, 강산이 4번이나 바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무 해 놓은 것이 없음에 머리가 멍해 옴을 느낀다. 하지만 자연의

신비로운 배려와 손길에 버금가는 조건의 사랑을 난 나의 학생들에게 베풀었고 알찬 미래를 준비(?)시켰다고 스스로 결정지으며 내 허탈함을 메우고 싶다. 학생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은 자연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대학 입학해서 4년간 교수님께 배워 온 것이며, 이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근본임을 너무 뒤늦게 느꼈기에 옛날을 돌아보고 싶고 그분들의 공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싶다.

분석 화학 실험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교수님께서 어김없이 사주셨던 자장면의 맛으로부터

따뜻한 인간애를 배웠고, 미국 유학에서 갓 돌아오신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 모두를 몽땅 우리에게 쏟아 놓으시려는 정열적인 모습에서 난 내 학생들에게 수업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교사의 기준을 배웠으며, 평소 말이 없으신 엄격(?)하시면서 어려웠던 교수님께서 졸업 사은회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모조리 알고 계셨다는 엄청난 사실에서 난 지금도 학생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흔치 않은 교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서울대 4년간 완벽(?)한 가르

치심으로 난 40여 년 교직을 행복하게 누려 왔음에 이제야 뒤늦게 고마움을 느낀다. 행복을 주었기에 갚아야 한다는 사실도 이제 너무 늦었지만 느껴본다.

다시 한번 시기는 늦었지만 서울대 동문이 된 자랑과 감격을 갚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내 심정을 고백하며 이 글을 마친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은 있어야 한다

金基德(72년 新大院卒)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위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건대, 나는 대학시절 사타구니에 땀띠가 생기거나 궁둥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연유로 해서 나는 서울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30여 년 전인 1970년, 나는 기자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 다녔다. 수업은 법과대학의 강의실을 빌려서 야간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업무를 끝내고 밤에 강의를 들으러 가면 법과대학 학생들이 도시락(반찬도 변변치 못한)을 두 개 또는 세 개씩 싸와서 그

걸 먹으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느꼈었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해 존경심마저 갖게 되었다. 과연 「서울법대로구나!」하면서 이들이 각종 고시 및 시험을 휩쓸며 우리 나라 여러 분야의 지도급 인사로 활약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약 10년 후인 1981년, 나는 KBS의 뉴욕특파원으로 발령받아 6년 가까이 그곳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처음 그곳에 체제하면서 느끼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외관상 거리가 몹시 지저분하고 걸인들과 범죄가 많아 세계 최고·최대의 도시라는 명성

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NBC방송의 부사장과의 얘기를 나누는 기회에 나의 그런 느낌을 말하면서 「미국을 세계 최대 부강국으로 지탱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물었다. 하버드대학교 출신 엘리트인 그는 진지한 어조로 「미국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본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곳에 가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로 다음 날 저녁, 나는 가까이 있는 컬럼비아대학교의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 도서관에서 나는 즉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새벽 2~3시까지 책 속에 묻혀 열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미국

의 장래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확답,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며칠 후 콜롬비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학을 찾아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취재해 「미국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라는 기획특집을 만들어 서울에 보냈다. 그 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찾아 취재하면서 나는 서울대 신문대학원 시절 법대생들이 변변치 않은 도시락을 먹어가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국가이건 그 사회, 그 국가를 이끌어 가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은 있게 마련이고, 또 그런 그룹이 존재해야만 국가가 발전해갈 수 있

다는 교훈도 얻었다. 나는 일류대학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엘리트그룹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쨌든 하향평준화로는 세계 일류에 진입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서울대생들이여! 면학에 힘써 분열과 반목과 상극으로 치달는 우리 사회·국가를 바로 잡는 바탕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여행을 통해 「글로벌 빌리지」 실감해

金光洙(27기 SGS)경성테크 코오포레이션 사장



대학 졸업 후 약 30년간의 분주한 회사생활을 벗어나 어언 인생회갑이라는 나이에 다다랐다. 작년 10월, 회갑을 한해 앞당겨 개인적으로 미국 서부지방을 자동차로 직접 드라이브하며 여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시행했다.

여행의 코스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비즈니스를 겸한 것으로 정했는데, 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몬트레이-페블비치-빅서-산루이스오비스포-허스트캐슬-솔뱅-산타모니카-로스앤젤레스-롱비치-에너하임-세인트루이스-콜롬비아-시카

고-서울의 코스로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일정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세미티 가는 도중과 요세미티에서 몬트레이로 오는 도중의 시골도시인 모데스토와 머시드에서 각각 1박을 했는데, 시골도시에는 예약 없이도 모텔과 호텔에서 묵을 수 있었다. 요세미티는 미국의 국립공원으로서 깎아 세운 듯한 바위산과 계곡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었고, 마리포사의 세콰이어 나무는 나무줄기에 벌어진 사이로 승용차가 드나드는 거대한 원시림이었다.

주마간산 식으로 요세미티 관광을 끝내고 저문 저녁노을에 재촉하여 몬트레이로 향했다. 몬트레이는 휴양의 도시로 안성맞춤적인 인상을 받았고, 페블비치 해안을 따라 숲 속 환상의 18번 드라이브 코스는 절정의 레저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태평양 해안 1번 국도를 따라 로스앤젤레스까지 오는 도중 태양이 바다수면으로 꼬리를 감출 직전에 하차하여 해안 벽에 서서 검붉은 지구의 저녁노을에 잠겨보았다. 다음날 아침 옛 시절 미국의 성주가 만든 허스트

캐슬이라는 고을 만한 성을 둘러 덴마크인이 형성한 마을 솔뱅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의 헌팅턴 식물원을 관광했다.

나는 15일간의 자동차 셀프드라이브에 의한 미국여행은 처음이었고,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하는 경험을 이제 하게되어 뿌듯한 마음의 궁지도 가질 수 있었다. 백년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았고 이것도 하나의 남은 인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지구상의 모든 세계는 한마을의 글로벌 빌리지라는 차원을 더욱 실감케 하는 계기를 체험했다. 지구상의 인간은 인종과 문화풍습은 다소 틀리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창조되는 근본은 동일하고, 지구상에서 일등인간이 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인가를 여행에서 느껴봄도 바람직하지 않을까.